

6월28일 Market Index	
코스피 2797.82 (+13.76)	코스닥 840.44 (+1.79)
금리 (연이자율) 3.182 (-0.038)	환율 (원/달러) 1376.70 (-9.10)



## 최태원 “5년간 103조 투자,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

**SK그룹, 경영전략회의**  
수익성·사업구조 최적화로  
3년간 재원 80조 확보 의전  
투자금 80% AI사업에 투입  
AI 데이터센터 예산 3.4조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SK그룹

“AI(인공지능)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가치사슬)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준비 등을 위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SK그룹은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103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금의 전체 80%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쏟기로 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최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최창원 수석추진기획의 의장과 주요 계열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최고경영진은 밸류체인 재정비 등을 위해 운영 다양한 TF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각사는 합의한 방향성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각 사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트랜지션(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준비 등을 위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서

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수익성 개선과 사업구조 최적화, 시너지 제고 등으로 2026년까지 80조원을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 투자와 주주환원 등에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 개선을 통해 3년 내 30조원 잉여현금흐름(FCF)을 만들어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또 지난해 10조원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

이 올해는 흑자로 전환해 2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 세전이익 목표는 40조원 대로 잡았다고 밝혔다.

SK그룹은 AI·반도체 투자를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개인형 AI 비서(PAA)를 포함한 AI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을 더욱 정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3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약 82조원(80%)을 투자한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5년간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최고경영자(CEO)들은 AI·반도체 밸류체인에 관련된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7월 1일 부로 수석추진기획의회의에 ‘반도체위원회’를 신설, 과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위원장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가 오는 7월 17일(수) 오후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에 금융·자산시장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이 최고가를 경신중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커진 덩치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미래 삶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을 궁리해야 할 때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당면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정재훈 KB부동산 박사,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 등 자산관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 합니다.

- 행사명 :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 주 제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일 시 : 7월17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3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등록 : ‘2024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www.metroseoul.co.kr),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엔화값 추락... 100엔당 850원 ‘16년만에 최저’

엔·달러 환율 37년 만에 최고치  
KB 등 5대은행 엔화예금 잔액  
1조2924억엔, 6개월새 14% ↑  
전문가, 당분간 약세 지속 전망

엔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대로 떨어져 16년 만에 최저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슈퍼 엔저’에 국내 엔화예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엔화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원·엔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100엔당 855.60원에 마감했다. 이는 작년 11월 기록한 연중 최저치인 858.38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난 2008년 1월 10일 기록한 855.47원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같은 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도 장중 161.20엔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 치솟아 37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향후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한 엔화 매수 및 일본 관광을 준비하는 환전 수요도 늘어 국내 엔화예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엔화예금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약 1조2924억엔에 달한

다. 지난해 말 기록한 1조1330억엔 대비 반년 만에 1594억엔(14.1%) 늘었다.

이번 엔화 가치 하락은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해 5.4~5.5%포인트(p)에 달하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미 연준은 지난 12일(현지시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발표한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를 1회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점도표에서 2회 줄어든 전망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는 9월 이후 1~2차례 진행될 것인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 극복을 위해 FOMC 직후 개최되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난 14일 금융정책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0~0.1%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개입을 천명했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지난 27일 “엔화약세가 일본 경제

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움직임을 분석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개입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일본 통화 당국은 지난 4월 말에도 엔화 가치 유지를 위해 85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시장 개입에 나선 바 있다.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0엔대 초반까지 내렸지만, 다시 상승 전환해 지난 27일에는 달러당 160엔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엔화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엔·달러 환율은 하반

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신뢰가 재확인되는 시점에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내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7월 말 환율의 고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이 정책적 실기를 한 측면이 있어 7월 추가 긴축 조치가 엔화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미 엔화의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에서 투기 세력의 엔화 약세 공격이 진정될지 불투명하며,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오세훈 “극단 치달는 팬덤정치...사이다보다 담백한 생수같은 정치할 것”  
▲한동훈 측, ‘尹 배신자론’에 “국민에 대한 협박...공한증 퍼져” /사진 뉴스1

▲‘한동훈은 3무 후보’ 공세 원희룡 “차별화와 배신, 종이 한 장 차이”  
▲침묵 깬 황교안 “이재명 처벌 너무 늦어져, 구속돼야...이건 정의의 아냐”



▲한·미·일 ‘프리덤 에지훈련’ 성공에...北 “아시아판 나토” 맹비난 /사진 뉴스1  
▲북한 공식 석상에 ‘김정은 배지’ 등장...단독 우상화에 가속도

# 조현준·조현상 독립경영 첫 발... '뉴 효성' 시너지 이끈다

## 효성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기존 ㈜효성 조현준 회장 이끌고 신설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맡아 '부진' 효성화학 실적개선 급선무

2개의 지주회사 구조로 재편한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독립 경영 체제가 첫발을 내디딘다. 형제 경영을 통해 승계 구도 안정화를 꾀하고 '뉴 효성'으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설 지주사를 설립하고 2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 앞서 효성그룹은 지난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지주사인 ㈜효성은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효성티앤에스로 구성되며 조현준 회장이 이끈다. 신설 지주사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그룹 본사 전경

/효성

말으며 효성첨단소재·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효성홀딩스 USA·효성도요타 등을 담당한다.

특히 효성그룹은 이번 체제 재편으로 사업 분야별로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등 '뉴 효성'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뉴 효성은 조 회장,

조 부회장이 각자 주력 사업에 집중하며 사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조 회장은 효성화학 실적 개선에 시급할 것으로 분석된다. 효성화학은 그룹의 '천덕꾸러기'로 불리며, 지난 2022년 3367억원, 2023년 18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특히 지난 1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3485.8%에 달한다.

아울러 효성그룹은 미래 신사업으로 바이오 원료, 수소 등 신사업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효성그룹은 올해 연간 1만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이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효성첨단소재는 수소연료탱크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를 만들어 생산부터 충전, 연료탱크까지 이어지는 그룹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HS효성의 안착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영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스파넥스를 이을 미래 소재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첨단소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타이어 코드 제품을 비롯해 수소에너지용 탄소 섬유, 방산 소재인 아라미드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HS효성 공식 출범 행사에서 회사의 성장 키워드로 '가치 경영'을 내걸기도 했다. HS효성 주주와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두 형제의 독립 경영 체제가 꾸러져도 그룹 내 사업적 시너지는 창출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업 분할 전에도 조 회장이 섬유·화학 사업을, 조 부회장이 첨단소재 부문을 중점적으로 맡아왔기 때문이다.

독립 경영을 통한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효성그룹은 독립 경영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신속 추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검토

###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보이콧 피싱 근절방안 등 중점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달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의 대상자를 증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불법 스펀의 증가 등도 논의됐다.

당정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논의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

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30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신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한 대출대상도 증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 2025학년도 수능, 킬러문항 철저히 배제

평가원, 수능 시행 세부계획 "EBS 연계율 50% 수준 출제 문·이과 통합수능 유지하기로"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초난도 문항)이 배제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

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할 것"이라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는 높일 방침이다. 평가원은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연계율은 문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2022학년에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은 유지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수학 영역을 예로 들면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22개 문항에 이어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등 본인의 선택과목 8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미 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 응시 접수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수능시험은 11월 14일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이현진 기자 hj@

## 반도체위원회 신설... 광노정 위원장 보임

>> 1년 '최태원, 5년간 103조...'서 계속

최 회장은 SK가 강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분야도 글로벌 시장에서 AI 못지않은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린·화학·바이오 사업 부문은 시장 변화와 기술 경쟁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실 경영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CEO들에게 당부했다.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에게 '질적 성장' 등 선명한 목표가 있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면서 "각 사별로 진행 중인 '운영 개선' 등에 속도를 내서 시장에 기대와 신뢰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 등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다가올 큰 기회에 대비해 성장의 밑거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출발점이자 결론"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투자 활동은 SK 기업가치 제고 외에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지난 2023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셀트리온그룹 2023 기자 간담회'에서 서정진 회장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1년 중 200일 해외출장... '짐펜트라' 직판체제 구축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 ⑥ '소방수' 귀환

대한민국이 '바이오 불모지'였던 시절부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뚝심으로 밀어붙여 셀트리온 그룹을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판매 회사로 자리매김시킨 서정진 회장 특유의 카리스마가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3월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3기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에 서정진 회장이 화상으로 깜짝 등장했다. 이날 서정진 회장은 여러 다양한 셀트리온의 당면 이슈들에 대해 주주들과 화상으로 소통했다.

해당 정기주주총회는 통합 셀트리온 출범 후 첫 정기 주주총회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법인인 통합 셀트리온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순조롭게 출발함을 알렸다.

서 회장, 2년만에 경영현장 복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사업 일원화... 신약개발 회사 도약

특히 이러한 의미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서정진 회장과 주주들의 '비대면 만남'은, 서정진 회장의 미국 체류 일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정진 회장은 미국에서 피하주사 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렘시마SC(미국명 짐펜트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상황을 전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짐펜트라'가 출시되면서 짐펜트라를 사용하는 병원은 2800개, 처방의사는 7500명에 이른다. 서 회장은 이 병원들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만나 셀트리온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저를 포함해 짐펜트라를 개발했던 사람들,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메디컬 팀이 미국 현지 영업팀과 함께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순회하고 있다"며 "미국에 계속 머물며 7번에 걸쳐 2800개 병원, 7500명 의사 모두를 만나는 것을 목표로"

올해 한국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회장은 "짐펜트라 매출을 초반에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주들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짐펜트라에 대한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획득해 올해 3월부터 미국 의약품 시장에 짐펜트라를 내놓게 됐다.

이처럼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그룹의 중요한 순간마다 '직접판매 체제 구축'을 강조해 왔다.

서 회장은 지난 2023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양사 합병안 가결 직후 열었던 '셀트리온그룹 2023 기자 간담회'에서도 '직접판매'는 셀트리온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서 회장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전역에서 이 병원에서 설명하고 저 병원에 가서 또 설명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마치 '보부상'처럼 다녔다"며 "캐나다에서 만났던 한 류마티스 내과 의사는 '셀트리온은 특이하다', '회사대표가 밤낮으로 해외 영업을 위해 다니는 경우가 결코 흔하지는 않다' 등의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서 회장은 이날 "직접판매는 세계를 품는 것"이라며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셀트리온이, 'K바이오'가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전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 뒤를 이어 손꼽

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 회장은 1년 중 200일 이상은 해외 출장에 전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사업이 성공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그의 자서전에서 "100개 가까운 국가에 수출을 하려면 1년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은 해외에 직접 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어찌된 당연하다"며 "저 사람과 거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를 만나기 위해 악착같이 파고든다"고 직접판매 비법도 공유했다.

서 회장은 "제품에 대한 거부감인지, 기업에 대한 호감도 문제인지 알아내야 한다. 우리 제품이 싫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논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우리 회사가 싫다고 하면 직접 와서 보라고 제안한다"는 것이 서 회장의 말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와 사업을 하려면 각국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서 회장의 사업 공식이다.

서 회장은 "우선 각국의 역사를 알면 다음으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어 항상 그 나라 역사, 문화, 전통을 공부하는 게 필수"라고 주장한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서 회장이 직접판매를 강조하고 그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직접 뛰어난 배경에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란 설명이다. 직접 판매 체제를 통해 유통 비용을 15~25%까지 낮춘 그 이익률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그룹은 제품 가격에서 경쟁력을 개선하면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궁극적으로는 판매 지역 및 시장점유율 확장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나아가 셀트리온 그룹은 연구개발 등으로의 투자 재원 확보 같은 선순환 구조까지 전망하고 있다.

서 회장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술 확보, 제품 개발 등에 집중하느라 유통까지는 업두를 못 냈던 것이 사실이며 어쩔 수 없이 유통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런데 유통 수수료에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았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자서전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中)

'짐펜트라' 지난해 10월 美 출시  
서 회장, 현지병원 직접 순회  
'직접판매는 세계를 품는 것'

현재 셀트리온 그룹이 세계 최대의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짐펜트라를 앞세워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서 회장의 출격이 그룹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서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그룹을 둘러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 '소방수' 역할로 다시 현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후 2년 만에 서 회장은 경영 현장에 복귀했다. 2023년 3월,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홀딩스를 비롯해 셀트리온 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각 사별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 회장을 2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2023년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온 셀트리온이 신규 제형 확보,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등 신약 개발 회사로의 도약에 나선 원년임과 동시에 서 회장 복귀 후 이뤄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또한 셀트리온 그룹의 전체 사업이 일원화돼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전사적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33기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에 서정진 회장이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 ‘마포 대장주’ 노린다... 입지 장점에 고급 자재까지 ‘완벽’

##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평지에 위치, 지하철 5호선 5분 컷 여의도 등 업무지구까지 20분 내 비선호 타워형에는 창호로 개방감 욕실 등에 고급 브랜드 제품 갖춰 유상옵션 품목들 대부분 기본사양

#“분양가가 높다고 하지만 요즘 마포가 많이 뜨고 있는 데다 대단지 신축이라 고민이 되네요.”(예비 수요자 A씨)

#“조합원 입주권은 몇 달 사이 프리미엄이 더 뛰었어요. 전용면적 84㎡의 경우 로얄층이 프리미엄으로 12억원(총 매수가 20억원 안팎)을 부르니 일반 분양도 인기가 많을 거 같은데요.”(공덕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



지난 28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견본주택에서 예비수요자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강북 최고 분양가로 이목이 집중됐던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이하 마자힐)’가 지난 28일 견본주택을 열었다. 첫 날에는 대기없이 입장이 가능했지만 주말에는 예비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었다.

마자힐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상 최고 22층, 10개 동으로 총 1101가구 규모다. 공덕동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입지면에서는 합격적이다. 언

덕 경사가 많은 마포구에서 보기 드물게 평지에 위치했고,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내렸더니 공사 현장까지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20분 안팎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도 한 정거장 거리다.

일반분양으로 나온 물량은 463세대다. 전용면적별로는 59㎡가 148가구, 84㎡가 311가구, 114㎡가 4가구 등이다. 청약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 분양으로 잘 나오지

않는 84㎡가 가장 많은 점도 장점이다. 견본주택에서는 59㎡A, 84㎡A, 84㎡D 타입이 마련됐다.

59㎡A는 기존 20평대 대비 넓은 주방에 펜트리 등 수납공간을 잘 갖췄다. 84㎡D는 판상형보다 선호도가 낮은 타워형이었지만 주방에도 창호를 내서 개방감과 함께 환기가 잘 되도록 했다. 84㎡A는 40평대 크기의 주방과 거실로 예비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다.

마자힐 분양 관계자는 “조합에서 단지가 마포 대장주가 되어야 한다며 외관이나 조경, 자재에 대한 요청이 많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공사 현장.

았다”며 “욕실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 제품이 들어가는 등 다른 분양 단지에서 유상 옵션인 품목들이 대부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청약 흥행의 관건은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마래푸)’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강북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우면서 다소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마자힐의 분양가는 3.3㎡당 5150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6억4000만원~17억4000만원 선이다. 발코니 확장비용과

옵션 등을 감안하면 17억원 후반대다.

아현동 마래푸 전용 84㎡는 올해 들어 1단지가 최고 18억4000만원, 2단지도 18억4500만원에 실거래가격이 신고됐다. 같은 평형 4단지 최고가는 18억5000만원이다.

청약은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0일이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거주 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다. 중도금 60%는 이자후불제가 제공된다.

/글·사진=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지하철 1분 컷에, 송파까지 15분 옆세권... 가격 대비 미래가치 집중

〈서울 인접 지역〉

## 산성역 헤리스톤

역세권·신축 대단지에 인산인해 3호선·분당선·GTX-A 노선 인접 1~2인 가구 겨냥한 특화 옵션 선배

#“견본주택 오픈 시간에 맞춰 왔는데 입장에만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고, 내부 살펴보는 데도 줄을 많이 섰어요. 예상보다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성남시 거주 A씨)

#“전용면적 59㎡로 보면 분양가가 9억 5000만원 안팎이라도 발코니 확장하고, 옵션 이거저거 하면 사실 10억원이거든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시세 감안하면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산성동 B 공인중개업소 대표)



지난 28일 산성역 헤리스톤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지난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산성역 헤리스톤’ 견본주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 하기가 좋은 ‘옆세권(서울 인접 지역)’에 지하철 역까지 몇 분 안 걸리는 ‘역세권’, 신축 대단지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성역 헤리스톤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에 산성구역을 재개발하는 곳이다. 최고 29층, 45개 동으로 총 3487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워낙 대단지다 보니 대우건설과 GS건설, SK 에코플랜트 등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공사 중이다.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초역세권이 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의 1번 출구에서 나오면 헤리스톤 단지 입구까지 도보로 1~2분이었다.

8호선을 이용하면 송파역까지 15분이면 가능하다. 3호선과 분당선으로 갈아타면 강남과 판교로도 이동이 가능하고, 가락시장역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상권은 아직 구시가지의 모습이지만 위례가 인접해 학원가 등 생활 인프라를 보충할 수 있다.

헤리스톤 분양 관계자는 “기존 각각 4000세대 이상인 산성역 포레스티아,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와 함께 헤리스톤이 완공되고 나면 약 1만2000여세대

의 초대형 브랜드 타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분양 물량은 총 4개 블록 가운데 2~4블록, 1224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46㎡ 244세대 ▲59㎡ 776세대 ▲74㎡ 52세대 ▲84㎡ 134세대 ▲99㎡ 18세대 등이다.

견본주택에서는 59㎡A와 84㎡A 타입의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전용 59㎡A는 안방을 포함한 침실 3곳, 욕실 2곳,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됐다. 주방은 거실과 연결해 개방감을 주고 실용적으로 짜냈다. 최근 늘고 있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듯 안방과 붙어있는 침실 한 곳을 드레스룸으로 꾸민 특화 옵션을 선보였다.



산성역 헤리스톤 견본주택.

전용 84㎡A 타입은 59㎡에 알파룸과 드레스룸이 더 추가됐다. 식탁을 6인용으로 놓아도 공간이 충분했고,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었다.

예비수요자들이 아쉬워했던 점은 중대형 평형이 많지 않은데다 그마저도 일반분양 물량은 대부분 저층이라는 점이다.

C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처음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는 대부분 59㎡라고 답하면서 중소형 위주로 공급했는데 옆에 산성역포레스티아 들어오고 중대형 가격이 뛰면서 조합원들이 많이 큰 평형으로 갔다”며 “저층 분양가와 같은 가격이면 포레스티아 고층을 하겠다는 분위기에 이번에 포레스티아가 매매가 많이 됐다”고 전

했다. 헤리스톤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3500만원이다. 중층 기준 전용 46㎡이 약 6억3000만원, 59㎡ 약 9억원 등이다. 저층만 남은 74㎡와 84㎡는 각각 10억원, 11억원 선이다.

계약금은 10%지만 1차 계약금 2000만원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를 적용했다. 비규제 지역이라 거주 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 제한은 1년이다.

청약은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9일이다.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글·사진=안상미 기자

나도 모르는 내 남편의 취향,  
지니 TV는 맞출 수 있을까?



주연 **곽동연 · 이주빈**



**GENIE TV**

AI가 시청 이력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

**kt, 당신과 \_ 미래 사이에**

# 대정부 질문서 순직해병 특검 다룬다… 여야 ‘강대강’ 대치

내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서  
국무총리, 부처 장관에 질의  
세수결손, 의정갈등 등도 예정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대정부 질문은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포문을 연다.

여야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의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의혹,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북러 관계 강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에게 날 선 질의를 할 예정이다.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와 감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과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공장 화재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 국회 회기가 7월4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전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최대 과제는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특검과 국정조사로 순직 해병의 억울함, 어머니의 한을 풀겠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고, 죄지는 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7월) 2~4일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가급적 빨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6월 3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의 장을 마련하는 국정조사를 위한 요구서도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尹 방송장악 저지”

방통위, 10개월 가까이 2인 체제  
野 방통위원 추천안에도 임명 지연  
본회의서 탄핵안 처리 시 운영 제동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담당하는 방통통신위원회에 정치권의 눈길과 발길이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6월 27일 김홍일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인 합의제 기구임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방송장악 쿠데타’라는 이유 등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3사(KBS·MBC·EBS) 임명 선임 계획 의결 시도를 저지하고자 방통위를 방문하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의 임명 선임 계획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결했다. 이로써 KBS·MBC·EBS의 이사 및 감사의 공모와 후보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 운영  
현재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을 정원으로 하는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 추천(여당 1명·야당 2명)으로 3인이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자신들의 권한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작년 3월 최민희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으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사안이었다며 임명을 지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나고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중요 안건 의결을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통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21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탄핵안 처리 시 2인 체제 운영 못해  
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돼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尹 탄핵 청원’ 70만명 동의… “총선서 작용한 경고 ‘여전’”

청원 올라온 지 사흘 만에 법사위 회부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어  
법률 위반 대통령 심판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오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려들었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70만 77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22대 총선 민

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탄핵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군사법원법 위반(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수사)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평화통일 의무 위반(전쟁 위기 조장) ▲대법원 판결 부정(일본 강제징용 전일 해병 강행)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후

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나열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약 청원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임기 3년 차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원, 그리고 70만명 이상의 동의는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청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

나 동의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같이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소추안 청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22대 총선에서 작용한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총선 민심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도 길다. 빨리 끝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불렀다”며 “국민들도 그 힘을 확인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우리(청원인들)가 힘이 돼 줄테니 윤석열 정권

탄핵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청원이 본회의로 넘어갈지는 의문이라는 예측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청원 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국민 청원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탄핵안 청구는 국민이 무능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 작년 보험사기 1조... “의료인 등 가담땀 가중처벌 고려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내달 기준 제시 발생횟수·피해금액 지속적 증가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해내야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유토이미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오는 8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양형인자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행 양형기준상 보험사기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지속 증가

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해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 6.7%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숨바

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심에서 죄가 안정돼 유죄 징역이 선고된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43.8%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27% 가량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 가운데 3년 이상 징역은 2021년 기준으로 6%에 그쳤다. 나머지는 1년 미만(47%)이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47%)의 비교적 가벼운 징역이 선고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다”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에서 일반적인 문서의 위조·변조가 아니라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의료법 위반죄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과 벌금형 선택 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규율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SK에코플랜트 ‘1033억’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8일 서울 중랑구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우성타운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동, 총 213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도금액은 약 1033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가 지나는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시내를 물론 시외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북부간선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도 인접해 경기 북부지역 접근성도 좋다.

교육 및 생활인프라도 우수하다. 주변에 상봉초, 중흥초, 장안중, 중화고 등과 더불어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CGV 등이 위치해 있다. 봉화산 근린공원, 중랑천 중화체육공원 등 녹지시설도 풍부하다.

사업지 인근에 중화2-2구역, 상봉7구역, 이문1-4구역 등 다수의 정비·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주거환경 개선 및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탁월한 시공역량과 우수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지방금융, 주주환원 확대... ‘분기배당’ 정례화 추진

JB금융, 이달 이사회서 정례화 의결 금융당국 밸류업 프로그램 발맞춰 BNK·DGB금융도 도입 논의 중



JB금융지주가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 /JB금융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도에 오르면서 지방금융지주도 주주환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JB금융이 지방금융 최초로 분기배당을 정례화해 주주환원 정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BNK금융과 DGB금융의 분기배당 도입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오는 7월 이사회에서 분기배당(3개월 배당) 정례화를 의결한다. JB금융은 지난 1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분기배당을 도입하면 배당이 잦아지는 만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며, 배당 전후로 발생하는 변동도 줄어든다. 또 결산배당(12개월 배당) 및 중간배당(6개월 배당)보다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4대시중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분기배당을 정례화했다. 그러나

지방금융지주 중 분기배당을 정례화하는 것은 JB금융이 처음이다.

JB금융 관계자는 “JB금융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배당을 주주들에게 약속한 바 있고, 1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정례화는 해당 정책을 재확인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의 분기배당 정례화는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춘 움직임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상장기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을 확

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낮은 배당률, 금융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저평가를 받았던 금융주에 투자가 유입되면서 시중금융지주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30.8% (6월25일 증가 기준, KB 47.3% 하나 41.3%, 신한 20.6%, 우리 13.9%)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금융지주의 주가는 평균 14.1%(JB 28.7%, BNK 19.1%, DGB -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주주환원율이 높고 배당도 잦은 시중금융지주로 투자금이 몰린 만큼, 지방금융지주 또한 분기배당 도입을 고심하게 된 것.

이어 금융당국이 배당액 확정일을 결정일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지방금융지주들은 분기배당 도입을 더 미뤄두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배당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분기·중간배당 절차에서 배당기준일 기한을 삭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중간배당 시 3·6·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며 이로 부터 45일 이내에 배당 액수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을 받을 주주 명단을 확정된 이후 배당액을 의결하는 구조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자는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분기배당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드는 셈이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 또한 분기배당 도입을 논의 중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그룹 내에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배당의 경우 금년도까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 주주 배당 확대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 7월 첫 주 전국 8곳서 9754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경기 화성, 광주서 건본주택 오픈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754가구(일반분양 685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벨

스’,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디에트르 퍼스티지’, 경기 성남시 산성동 ‘산성역 헤리스톤’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건본주택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상무퍼스티엄스위첸’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경기 과천시 문원동 지식정보타운 S2블록에서 ‘과천디에트

르퍼스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740가구 규모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미만 수준으로 분양가(거주의무기간 5년)가 책정됐다.

오는 2027년 개통예정인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가칭)과 정부과천청사역이 가깝고 과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용이하다.

/김대환 기자 kdh@



과천 디에트르퍼스티지 조감도. /대방건설

## 손해보험협회 신임 전무에 오홍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8일 신임 전무로 오홍주 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자문관(사진)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신임 전무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오 신임 전무는 1965년생으로 금성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성균관대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1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한 이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보험감리국장,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이규복 “2030년까지 9조 이상 투자… 목표매출 40조+α”

(현대글로비스 대표)

**현대글로비스 CEO 인베스터 데이**  
중장기 전략, 주주환원 정책 제시  
선박 등 핵심 자산 최대규모 투자  
“인수합병 방식 성장도 적극 검토”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글로비스가 2030년까지 향후 6년간 9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를 통해 매출액 40조원 이상, 영업이익 3조원(영업이익률 7%) 수준 등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신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현대글로비스의 2030년 목표 매출은 '40조원+α'로 영업이익 3조원, 영업이익률 7% 수준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물류 사업(36%), 해운(30%), 유통(11%), 신사업(23%) 등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현대글로비스

는 창사 이래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이루겠다는 포부다. 연평균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지난 5년 연평균 투자액(4000억원)과 비교보다 3배 이상 높다.

중장기 외형성장을 위해 기존 사업의 확장, 비계열 매출 적극 확대, 신사업 전개 등 3가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물류 인프라·선박 등 핵심 자산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실행

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스마트 물류 솔루션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을 키운다. 특히 계열 매출뿐만 아니라 비계열 매출을 50% 이상으로 늘려 성장세를 더 키우기로 했다.

물류의 경우 해외물류 사업에서 공격적으로 비계열 영업에 나선다. 이로써 글로벌 포워딩 부문 사업 내 현재 20%의 비계열 매출 비중을 2030년에는

60%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다.

해운은 글로벌 토탈터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끈다. 자동차선 사업의 경우 비계열 고객을 늘려 2030년 그 매출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벌크선에선 액화천연가스·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을 통해 매출 증대를 이룬다.

유통 사업은 KD사업 신규 수주를 늘리고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재활용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사업에서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강화,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사업 본격화 등 신사업도 시작해 수익 증가를 이뤄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물류 허브 거점 투자, 초대형 선박 투자와 함께 나아가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이 공격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방식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연 평균 1조3000억원 가량의 핵심 자산 투자로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인수합병 방식의 성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향후 3개년 간 신규 배당정책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배당이 기존 ‘전년도 주당배당금(DPS)의 5~50% 상향’에서 ‘전년 대비 배당금 최소 5% 상향&배당성향 최소 25% 이상’으로 신규 변경된다. 배당성향 최소치인 25%를 가정해도 2027년 주당배당금이 2023년(6300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1대1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 주식 수량도 3750만주에서 7500만주로 늘린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7월15일이고 신주는 8월2일 상장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주식 수량이 많아지면서 주당 가격이 지금보다 2분의 1로 낮아져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주식 거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간담회

# “그랑 콜레오스, 르노 DNA 바탕 한국 고객 최적화”

네이버·티맵 등 국내 기업 협업  
부산공장 생산 노하우 어우러져



지난달 27일 '2024 부산모빌리티쇼'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르노코리아 전시장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랑스 디자인에 한국 감성을 더했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르노코리아의 친환경차 개발 프로젝트 오로라의 첫 번째 모델 D 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디자인을 비롯한 전체적인 개발 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27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그랑 콜레오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가 미래 혁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이자 르노의 플래그십 SUV이다. 백스코 르노코리아 전시장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드블레즈 사장을 만나 그랑 콜레오스의 탄생과 르노코리아의 향후 전략을

들어봤다.

엔지니어 출신인 드블레즈 사장은 프랑스 르노그룹과 중국 길리그룹의 '오로라' 프로젝트를 이끈 인물이다.

드블레즈 사장은 “한국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차량을 제작했다”며 “현재 동급에서 가장 강력한 전동화 하이브

리드 엔진을 탑재했으며 2열과 적재공간 등 공간 효율성 확대와 인포테인먼트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드블레즈 사장의 설명에 걸맞게 탑승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최신 엔진 탑재로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다. 우선 4780mm의 차체 길이에 2820mm의 동급 최대 휠베이스로 설계했으며 320mm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다. 트렁크의 경우 뒷좌석 폴딩 시 최대 2034L(가솔린 모델 기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워트레인은 새로운 버전의 E-Tech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다. 이는 1.64kWh 용량의 배터리에 하이브리드 전용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멀티모드 오토 변속기를 결합한 르노의 최신 파워트레인이다. 시스템 최고출력은 245마력으로 고성능 주행이 가능하며 상시 전기모드로 시동을 걸고 출발할 수 있도

록 했다.

드블레즈 사장은 “소비자들의 일상 운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속 40km 이하 도심 구간에서는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랑 콜레오스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도 눈길을 끈다. 드블레즈 사장은 “TMAP(티맵) 네비게이션과 네이버와 손잡고 최적화된 차량용 브라우저 등을 탑재했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 3개 스크린을 장착했는데 2개는 운전자용 1개는 동승자용이다”고 말했다.

드블레즈 사장은 “그랑 콜레오스는 ‘매일을 함께하는 차’라는 르노의 DNA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협력, 국내 연구진들의 휴먼 퍼스트 기술 구현을 위한 열정, 부산공장 및 협력업체들의 뛰어난 생산 노하우와 품질 경쟁력이 어우러져 탄생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부산=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 비스포크 AI 콤보 체험 이벤트

삼성전자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 CGV 씨네드쉐프에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와 디즈니·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함께한 특별 체험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영화 개봉에 앞선 지난달 20일 인사이드 아웃 2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영화 주인공인 ‘다일리’가 야외활동으로 더러워진 옷을 빨래하면서 겪는 다양한 감정의 해결사로 비스포크 AI 콤보가 등장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올인원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맞춤 코스 등 다양한 AI 기능으로 편리한 세탁·건조 경험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 제주항공

###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제주항공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자사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항공은 ESG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보고 가이드라인,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산업 표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 내용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를 준수해 작성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주주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미래 사업 방향에 대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박대성 수석기자 iunmns@

## LG디스플레이, 용수 재이용률 74% 달성

‘2024 ESG 리포트’ 발간

LG디스플레이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폐수 재이용 효율 개선 등 친환경 활동을 담은 '2024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업계 최상위 수준의 용수 재이용률(74%)을 달성했다.

LG디스플레이는 친환경 기술 혁신, 협력사 ESG 역량 제고 등 지난 1년간 추진한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아 '2024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기술 혁신’에 집중했다. 기후대응 핵심관리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친환경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일부 친환경 공정 장비도 90% 이상의 고효율로 개선했다.

특히 폐수 재이용 효율을 높여 국내 업계 최상위 수준인 74%의 용수 재이용률을 달성했다. 판매제품에 대한 친환경 평가도 2022년 대비 두 배 증가한 제품 40%에 대해 완료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LG전자,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TV 최초 엔비디아 지싱크 인증

LG전자가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를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형 LG 무선 올레드 TV(M4)는 더 강력한 무선 전송 솔루션과 인공지능(AI)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4K 해상도 기준 최대 주사율(초당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개수)이 지난해 120헤르츠(Hz)에서 올해 144Hz로 높아졌다. TV 중 최초로 144Hz 가변

주사율 관련 엔비디아(NVIDIA) 지싱크(G-sync) 인증도 받았다.

무선 전송에 60GHz 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6GHz 이하 대역폭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 와이파이와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 안정적이다.

이번 제품에 적용된 알파11 프로세서는 4배 강력해진 AI 딥러닝 성능을 기반으로 픽셀 단위로 업스케일링 해 더욱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한편, TV 설치 공간과 콘텐츠 사운드를 분석해 최적화된 공간 사운드를 표현한다. /구남영 기자



에코프로비엠의 자회사이자 유럽 현지법인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는 지난 27일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ECA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병구 HSBC 수석본부장, 신유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본부장(부행장), 최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정재용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본부장, Dorothee Regazzoni BNP 파리바 한국대표. /에코프로

##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양극재 공장건설 속도

공적수출신용기관 투자금 1.2조 확보

에코프로비엠이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해 약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국내 양극재 기업이 해외 현지 투자에 대해 조 단위 ECA 자금 지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 자금을 이용해 에코프로 그룹의 첫 해외 사업장인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30일 에코프로비엠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회사이자 유럽 현지법인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ECA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8억 6000만 달러이다. ECA 파이낸싱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자국 기업의 수출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 지원을 뜻한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억8000만 달러의 보증 및 2억5000만 달러의 직접 대출을 진행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4억 3000만 달러의 보험을 제공한다.

에코프로비엠 헝가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및 보험을 바탕으로 BNP, HSBC 등 5개 글로벌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데브레첸에 연 10만8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며 이에 소요되는 투자비 규모는 총 12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에코프로비엠의 헝가리 공장은 2025년 상반기 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공장이 가동되면 유럽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 ‘홍해사태’ 장기화에 해상운임 급등 국내 조선사, 컨테이너선 수주 늘어

기술력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회복  
HD한국조선해양, 4.7조 규모 수주  
삼성중공업, LNG 선박 6척 계약

중국이 독점하던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늘리고 있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상 운송 수요가 늘면서 컨테이너선 발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 회복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에 한동안 끊겼던 컨테이너선 일감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해상운임이 강세를 보이며 컨테이너선 가격도 올라서다. 양대 운하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 이유로, 파나마 운하는 기상 악화 문제로 통행 차질을 겪고 있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해상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월 셋째 주에 전주보다 96.38p 오른 3475.6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마지막 주 1730.98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셋째 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네 머스크호’의 모습. /HD현대

앞서 국내 조선사들의 고부가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컨테이너선 수주는 모두 중국 조선사들의 몫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상선 가운데 컨테이너선은 단 한 척도 없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양쯔강 조선·장난조선 등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컨테이너선 수주에 다시 집중하면서 업계가 새로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3일 글로벌 3위 해운사인 프랑스 CMA-CGM과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의향서(LOI)를 맺었다.

최근 신조선가를 고려한 수주액이 34억달러(한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CMA-CGM이 주문한 선박은 내연기관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중연료 추진선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6척과 12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해 2027~2028년 인도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HD한국조선해양은 약 155억달러치를 수주한다. 이로써 일찌감치 올해 목표치인 135억달러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또한 CMA-CGM으로부터 지난 17일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선박 6척을 수주했다. 또한 해당 해운사와 1만5000TEU 규모 컨테이너선 12척 공급에 관한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이 해상 물류 시장으로 번지는 점도 국내 조선사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사에 발주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 물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 조선사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HD현대오일뱅크 “변화, 선도하겠다”

충남 본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HD현대오일뱅크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대산 공장 본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 임직원 337명과 우수 거래처 9개사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는 “그동안 HD현대오일뱅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임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경쟁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의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오면서 130만평, 하루 69만

배럴 규모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64년 충남 대산에서 국내 최초 민간 자본 정유 회사로 시작해 HD현대셀베이스오일, HD현대케미칼 등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종합 에너지 회사로 성장했다.

주영민 대표이사는 이어 “최근 에너지 전환, 어려운 시장 지표 등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회사의 흥망을 가르는 변곡점 위에서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선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자”고 당부했다. /차현정 기자

## KT “AI가 만든 휴양지 콘텐츠 어때요”

‘지니 TV AI트래블뷰’ 선봬

KT가 국내 인터넷TV(IPTV)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지니 TV AI트래블뷰’(이하 AI트래블뷰) 채널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AI트래블뷰는 유명 도시나 아름다운 휴양지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AI로 생성해 제작한 콘텐츠 채널이다. 지니 TV의 ‘#848번’과 ‘#849번’ 채널에서 광고 없이 24시간 무료로 볼 수 있다.

채널 #849번에서는 오는 7월 파리 올림픽에 맞춰 파리 관련 콘텐츠를, 채널 #848번에서는 여름휴가 테마로 뉴욕, 베네치아, 태국, 몰디브 등 인기 있는 도시나 아름다운 휴양지 관련 콘텐츠를 볼 수 있다. KT는 두 채널을 통해 매달 5편씩 각각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AI트래블뷰’ 콘텐츠는 AI로 영상을 분석하고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KT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 ‘매직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해민 수습기자 hyem@

## “주주·고객 등 가치제고 최우선 삼을 것”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임직원 1천여명과 타운홀미팅  
조현상 부회장 “가치경영 펼칠 것”

“HS효성은 주주와 고객, HS효성 가족,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치 경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27일 HS효성 그룹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객과 주주에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고, HS효성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치’를 최우선의 DNA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30일 HS효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을 맞이해 첫 행사로 타운홀미팅 ‘HS효성 토크 투게더(Talk Together) 시즌 1’을 개최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 스마트팜에서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효성 역사상 처음 이뤄진 HS효성의 타운홀미팅은 의례적인 출범식 대신 서로 소통함으로써 임직원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조 부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조 부회장은 평소 즐겨 읽는 청바지와 후드집업 차림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HS효성의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Q&A도 직접 주재하며 임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임직원들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타운홀 미팅서 직원들의 요청에 셀카를 찍고 있다. /HS효성

조 부회장의 소통 행보에 적극 호응했다. 세계 각지의 사업장에서 회사의 비전,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HS효성은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봉사활동으로 이어갔다.

지난 5월 28일 HS효성 나눔봉사단장인 조현상 부회장과 HS효성,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더클래스 등 임직원 30여명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국내 최초 장애인 스마트팜 ‘푸르메소셜팜’을 찾았다.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며 정당한 급여를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첨단 스마트농장이다. HS효성 임직원들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토마토 등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가공, 포장 등을 함께하며 힘을 보탤다.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비와 소외된 비장애형제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푸르메재단과 12년째 함께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HS효성의 첫 외부 행사를 우리보다 남을 위해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S효성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원본 부장에 신덕수 전무(전 효성 전략본부 임원), 재무본부장에 이창엽 전무(전 효성 재무본부 임원)를 선임했다.

/차현정 기자

ION SUPPLY DRINK

#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 증권사, '밸류업 정책' 지원 사격... 이벤트·서비스 전략 펼쳐

밸류업 공시 시행 한 달 지났지만 코스피 상장사 참여율 0.52% 수준 참여한 7개사 중 3곳, 금융투자사 KB증권, 새 슬로건 내세운 이벤트 신한투자증권, 'MyPB 멤버스' 출시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상승을 위해 논의 중인 증권사 직원들 이미지.

정부 주도의 '기업가치 제고 공시(밸류업 공시)'가 본격화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이벤트·슬로건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시 참여 자체는 저조한 가운데, 참여사 중 절반 가량이 금융투자사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공시(밸류업 공시)'가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 중 밸류업 공시를 낸 곳은 키움증권과 콜마홀딩스 2곳이며, 예고 공시한 곳은 KB금융, 우리금융지주, DB하이텍 등 3곳이다. 코스피 기준 밸류업 공시 참여율은 0.52%

수준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 주도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도 확대됐다. 1분기 전체 증권사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16조5000억원 대비

29.7% 급증했다. 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밸류업 세부안이 발표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세부안에서 시장이 요구했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나 강력한 세제 혜택 등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후 증권사들은 밸류업 정책을 지원하고자 각종 전략을 내놓고 있다. 최근 KB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

TS)에 'Again BUY KOREA' 전용관을 신설하고 '커져라 똑딱! Again BUY KOREA'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Again BUY KOREA'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평가된 기업이나 우량 기업을 소개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KB증권의 새 슬로건이다. 전용관에서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선정한 'Again BUY KOREA 종목'을 게재하고, 해당 종목 매수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주식 쿠폰을 제공한다.

KB증권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자본시장 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적극 동참한다"며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증권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한국증시 밸류업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한 MyPB 멤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국 증시 밸류업 지원을 위해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7개사(코스피·코스닥 총합) 중 3개사는 금융투자사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던 곳은 KB금융으로 예고공시를 냈으며, 실질적으로 본 공시를 가장 최초로 이행한 곳은 키움증권이다. 이외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밸류업 공시에 동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상반기 증시 상승을 주도한 이슈는 밸류업이고, 가장 큰 수혜자로 증권사를 꼽을 수 있다"며 "증권사들도 밸류업이 중장기 정책임을 고려해 큰 바탕에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 日 증시 3088만弗 순매도

아이셰어즈 20년이상 미국채 엔화 헤지 TIGER 일본엔선물 ETF 등 매도세 170엔까지 전망... 통화정책 관망 필요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하는 등 엔화 약세가 지속되자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일본 증시에서 3088만달러(약 4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월 기준 첫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를 가장 많이 매도했다. 가장

많이 매도한 상품은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 헤지' ETF로, 약 4671만5730달러(약 645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이 ETF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상승(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과 엔화 반등 시 환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엔화에 베팅하는 국내 ETF도 팔아치웠다. 이달에 'TIGER 일본엔선물 ETF'를 약 13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ETF로 엔선물지수를 따른다. 최근 엔저 현상에 따라 이 ETF의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은 -3.70%를 기록했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지

수는 지난 3월 처음으로 4만선을 돌파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확 개미들은 올 1~4월 매달 1억 달러가 넘는 일본 주식을 순매수한 바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미국 고금리 국면이 지속되면서 엔화 가치가 끝도 없이 떨어진 데다 일본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자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 매도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넘어 170엔까지 약세를 보일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통화정책 변화를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로 금리가 높은 달러에 자금이 몰리며 엔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모두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 심리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일본 정부의 잇따른 구두 개입과 실제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꺾이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미-일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만으로 엔화 약세 심리를 진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오는 7월 개최될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혹은 양적완화 규모 축소와 같은 추가 긴축 조치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엔·달러 환율이 161.07엔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

## 증권사, '편리함' 앞세운 고객유치 활동

코스피 시장 활발... MTS·WTS 개선 키움증권, 플랫폼본부 신설 등 정비 토스증권·신한금융그룹, '원앱' 전략

젊은 주식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편리함'을 앞세운 고객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피 지수 평균과 거래대금은 각각 2668.75, 1357조2371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 평균이 2492.95, 거래대금이 1141조4149억을 감안 할 때 올해 코스피 시장이 지난해 보다 활발해 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개편·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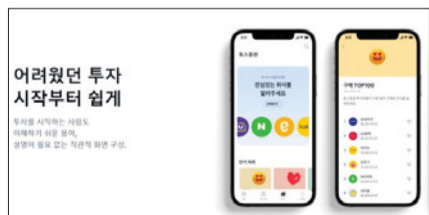
하던 MTS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많지만, 새로운 MTS를 사용해 더 편리하게 증권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며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고객들은 수탁수수료만큼이나 증권 거래 시 '편리한 증권 플랫폼'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리테일 강자로 불리는 키움증권도 7월 중으로 플랫폼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주식거래 플랫폼 '영웅문'을 포함한 플랫폼 정비에 나선다. 키움증권은 이 본부를 통해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환경(UI)을 개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통증권사의 이러한 움직임을 '신흥 경쟁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변화로도 보고 있다. 특히 토스증권과 같이 '원앱(One-app)'을 앞세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게 편리함으로 인기를 끌며 신흥 강자의 반열에 올



'신한 슈퍼솔' 광고 /신한금융그룹



'토스증권' 광고 /토스

랐다. 간편함을 강조한 증권사들의 '원앱' 열풍은 이제 업계 전반의 대세이기도 하다.

이미 금융가에서도 신한금융그룹이 '슈퍼 솔(Super SOL)'을 선보이며 은행·증권·카드·라이프·저축은행 등 그룹사 5개 금융앱의 주요 기능을 통합한 원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SK증권, 국내 최초 'IFRS S2 보고서' 발간

(국제회계기준)

기후 관련 공시안 반영해 작성

SK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IFRS S2(국제회계기준) S2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IFRS 재단 산하의 ISSB 위원회(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국제 기준인 S1 '일반 공시 요구 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했다. ISSB 기준서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공시 권고안에서 상당 부분 차용했으며, TCFD는 IFRS 재단에 흡수됐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SK증권 TCFD 보고서의 기초를 잇되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안을 충분히 반영해 작성됐으며, 일부 내용은 TCFD 권고안을 반영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발간된 두 번째 TCFD 보고서에서 계획으로 담았던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

한 정량적 분석 등에 대한 2023년 한 해 동안의 이행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바탕으로 녹색 경제 활동의 규모를 파악하고,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투자자산의 이행 및 물리적 리스크 노출도를 산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IFRS S2 보고서 발간으로 어느덧 3년째 이어오고 있는 SK증권의 기후공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가게 됐고, 이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현하고자 하는 SK증권 ESG 경영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며 "이 보고서에 담긴 넷제로 전략과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도전과 성과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 여경협, '제3회 여성기업주간' 돌입

슬로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 19개 지역서 55개 프로그램 운영 우수제품 온라인 상생기획전도



희망하는 예비 수출 여성기업인들이 모여 글로벌 진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또한, 주한 여성 외국대사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여성기업의 저력을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개막식에 앞서선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례 선임연구위원과 (주)코딯 정지은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2일에는 '여성CEO오찬포럼'이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된다.

포럼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속 여성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삼일 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가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AI)시대에 직면한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 경영인사이트를 제공한다.

3일에는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이 서울 역삼동 팀스타운(S1)에서 열린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수상자 시상 외에도 ▲수상작 제품 전시 ▲

선배 수상자 토크콘서트 ▲네트워크킹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여성 스타트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

5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여성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및 구매담당회'도 열린다.

이 밖에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매칭데이(1~31일, 잠코리아) ▲여성기업 판로 역량 강화교육(8일, 코엑스) ▲맞춤형 MD 상담회(11일, 양재동 AT센터) 등도 예정돼 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사진)은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한 여성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바로 '글로벌'이라며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기업 제품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우수제품 온라인 상생기획전'도 펼쳐진다.

기획전은 ▲쿠팡 여성기업 제품 특별전(1~31일) ▲공영홈쇼핑 상생방송(3일) ▲여우핫딜 페스타(1~5일)로 구성돼 7월 내내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미래유망 분야 주관대학 선정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대학	학과명	학위
중소기업 계약학과	평택대	반도체엔지니어링학과	학사
	한국공학대	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석사
	순천향대	스마트제조공학과	석사
기술사관	계명문화대	소방환경안전과	전문학사

## 중기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4곳 선정

"청년 일자리 창출, 인력난 해소 기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신기술·신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4곳을 새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이번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평택대(반도체엔지니어링학과), 한국공학대(스마트시스템융합공학과), 순천향대(스마트제조공학과), '기술사관'은 계명대(소방환경안전과)를 각각 선정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열고 중소기업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문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취득(과정당 1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을 통해서선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각 주관대학은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육 기반(인프라) 구축, 학생 모집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해 9월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기술사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중소기업,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는 각 주관대학의 모집 요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이 미래 유망분야 인재를 양성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혁신특구·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기초자치단체 등 신청 자격 확대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포함 9곳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새로 선정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대표적인 규제프리존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강원(AI 헬스케어 특구), 충북(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전남(직류산업 특구)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합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초광역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세 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케이티엔에프, 동반성장 지원 맞손

네트워크론 활성화, 지역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산 서버 개발 전문기업인 케이티엔에프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활성화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뜻을 같이해 성사됐다.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은 중진공이 올해 신규 추진 중인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의 수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저리의 단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측은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에 단기 정책자금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오른쪽)가 케이티엔에프 이종현 대표와 지난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업 추천과 연계 지원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협력 중소기업 대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인력양성, 마케팅 등 후속 연계 지원 ▲산업 현장 정보교류 확대 ▲우수기업 발굴 및 사업 홍보 등이다. /김승호 기자

## 아세아시멘트, 석회석 대체 시멘트 공정 실증

포스코·현대제철 슬래그 2400t 제조

아세아시멘트가 시멘트산업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슬래그로 석회석을 대체한 시멘트 시제품 제조 실증화 공정 시험을 실시했다.

30일 아세아시멘트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시멘트 원료용으로 전처리 가공한 슬래그 약 2400톤을 가져와 이를 적정 비율로 석회석 등 기존 원료와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하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 에너지 효율 변화를 확인했다.

또 시멘트 압축강도와 유해성분과 같은 시멘트의 전반적인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했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정부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업계와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통상 수년 이상이 걸리는 실제 공정 활용 실증화 실험을 전격적으로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 업종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기술개발이 성공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들이 충북 제천에 있는 공장에서 철강 슬래그를 석회석 대체원료로 활용한 시멘트 시제품 제조 시험을 알리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적으로 진행돼 탄소배출 저감,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홈앤쇼핑, 월간 프로모션 전개

홈앤쇼핑이 7월을 맞아 다양한 월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0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월간 프로모션 행사 중 하나인 '빅키세븐 쇼핑어택'은 7월 내 실결제금액 1만원 이상 모바일 앱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차등 지급하고 총 47명을 추첨해 경품을 선물한다. 당첨자는 14일 발표한다.

"TV는 적립을 신고" 행사는 6~7월 두달 연속 TV 라이브 상품을 10만원 이상 앱 구매 시 1만원 적립금을 지급한다.

'빅 적립데이'는 10일 당일엔 행사 기획전의 전시 상품을 모바일 구매 시 추가 10% 적립금(최대5만원)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 교원 웰스

'아이스원' 신기술 5건 특허

교원 웰스(Well s)가 얼음정수기 신제품 '아이스원(사진)'에 적용한 신기술 5건에 대한 특허 출원을 끝냈다.

30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출원한 특허는 얇은 패널 형태의 이중관 냉각장치를 통해 제품의 크기는 최소화하면서 아이스룸 공간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또, 제품 결빙을 방지하고 얼음의 탈빙과 운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김승호 기자



# 60대 인구, 40대 제치고 2위 오른다... 사상 첫 추월 '눈앞'

8~9월쯤 연령대별 인구 2위 전망  
40대 782만명, 60대와 10만명 차  
10년 전 나이대별 7위서 수직 상승

올해 3분기 중 국내 60대가 40대를 거주민 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친다. 60대는 오는 8월 또는 9월께 50대에 이어 연령대별 인구 2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772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1950년대 중후반 및 1960년대 초중반 출생이 주축인 이 나이대 인구는 지난 10년간 급증을 거듭했고, 40대(782만 명)와의 격차를 10만명까지 줄였다. 10년 전인 2014년 5월만 해도 60대는 455만 명으로, 40대, 50대, 30대, 20대, 10대, 9세 이하에 이어 나이대별 인구순위 7위에 처해 있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영양제 등을 전달하고 있다. /유한양행

이후 유소년 인구 및 20대·30대 등을 차례로 따라잡은 뒤 현재 3위에 자리하고 있다. 40대는 10년 전 거주민 수가 가장 많

았으나 지난 2018년 8월 50대에 선두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이제 올해 3분기 중 60대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게 된다. 40대와 60대의 격차는 1년 전인 지난

해 5월 말 기준 47만 명(800만 명 대 753만 명)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 32만 명 차로 좁혀졌고 올해 5월 불과 10만 명 차까지 줄었다. 연평균 37만 명 증한다는 가정하에 격차는 매월 3만 800명쯤 줄어든다. 추세가 유지될 시 이른 8월, 늦어도 9월 말쯤 60대는 40대 인구를 앞지른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60대 인구의 급증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60대 진입이 한몫했다.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60대는 2014년 5월 455만 명에서 올해 5월 772만 명으로, 317만 명(69.6%) 늘어났다. 총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2019년 11월(626만 명)에 비해서도 60대는 146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50대(872만 명)보다는 아직 100만 명 적다. 하지만 이 역시 고령화가 가속화 흐름을 타고 차이를 빠르게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자인구만 놓고 보면 60대가 이미 40대를 올해 2월에 추월했다. 행안부 집계 5월 기준으로 40대 여성이 384만 명, 60대 여성이 392만 명이다. 여성은 또 70대(218만 명)가 10대(225만 명)를 따라잡기 일보 직전이다. 9세 이하 여아의 수는 158만 명에 그쳤다. 오는 2027년쯤 국내 여자인구는 만 50세 이상이 절반 넘게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50살 이상 여성 수는 전체 여성의 40%를 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아파트 건축자재 매입담합 20곳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2억 부과  
방음방진재 등 사업자 사전 가격담합

아파트 건축자재를 사들일 때 입찰 가격을 깎아미끼 의혹을 받는 업체 20곳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들 업체에는 시정명령에 더해 과징금 총 12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등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낙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2022년 4월 기간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 의혹이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 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대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에 대한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 20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방음박스. /뉴스1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더해 총 12억 14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20개 업체는 (주)태우에이티에스와 (주)하이텍이엔지 등이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뜻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

진행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이고, 소방내진재란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이 셋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소부장' 핵심기술 구축에 4년간 700억 투입

산업부, 신규과제 7개 공모

정부가 이른바 국내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에 7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7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품목의 성능·신뢰성 향상,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7개 신규과제는 ▲반도체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및 기반구축 ▲디스플레이 OLED용 고기능 코팅/필름 실증 기반구축 ▲자동차 미래차용 고출력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 ▲전기전자차세대 통신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구축 ▲기계 자율 협업 제조 공정용 제어 모듈 평가 인프라 구축 ▲금속 수소 산업용 고인성·내수취취화금속소재 실증 기반구축 ▲기초화학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기반구축이다.

이들 과제는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인공지능(AI)

I) 반도체 개발, 자율협업 제조공정, 친환경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장비구축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지원규모는 향후 4년간 국비 총 700억 원으로,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가 대상이다.

과제 접수는 오는 7월3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내재화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인 장비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호한 장비구축 추진을 위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기업 수요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韓 '수삼' 하반기부터 美 수출길 열린다

텍사스산 자몽 수입 검역 최종 타결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반대급부로, 우리는 텍사스산 자몽을 들여오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해진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6월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봄 햇수삼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내 수입 허용을 공고했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해, 수삼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수질원격감시체계 우수 활용사례 공모

환경부, 오늘부터 9월12일까지 신청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를 활용한 사례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7월 1일~9월12일이며, 우수사례(계획 포함) 4건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란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t)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거나 일일폐수 배출량이 200t 이상인 사업장 등 1077곳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631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51곳, 폐수배출사업장 295곳이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해,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을 실시간

으로 측정·관리(한국환경공단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의 목적은 현재까지 축적된 사업장의 측정자료를 활용해 사업장 내 공정 및 시설개선 등에 활용한 사례 또는 활용계획을 적극 찾아내는 데 있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의 활용 확대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우편(wtms@keco.or.kr)을 통해 공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www.soosiro.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최될 수질원격감시체계 연차회에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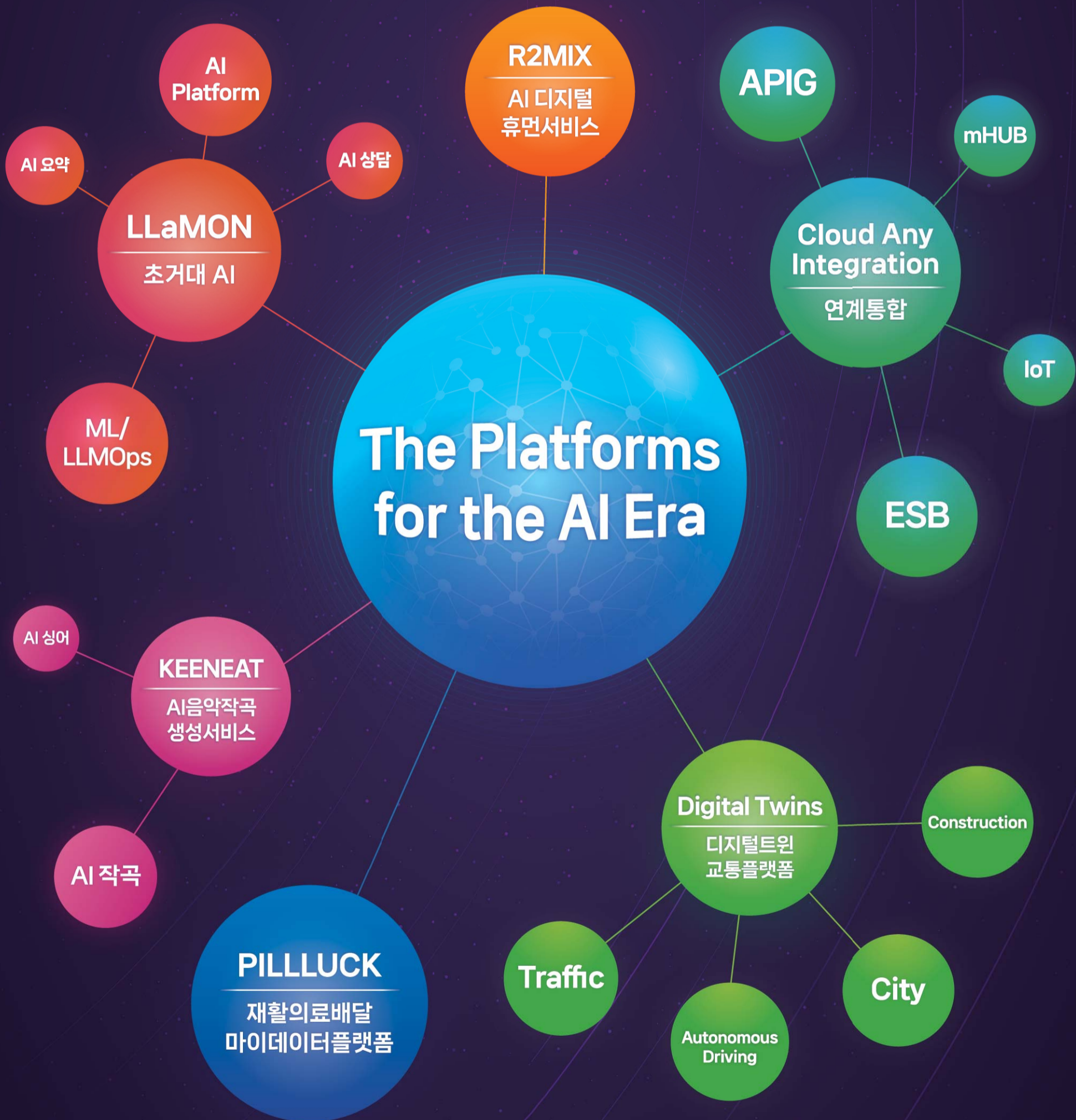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 목포시,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 행보... 조선·해운업계 '주목'

해수부 공모사업 4건 중심  
신기술·연구 집적화단지 구축  
세계 최대규모 LBTS 개발 추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친환경선박'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계적인 친환경화 패러다임과 환경규제 강화는 조선·해운 분야에서 예외는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3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과 2050 Net-Zero 실현 발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관련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산업동향에 발맞춰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연관산업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조선·해운 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4건(약 1500억원 규모)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선박 신기술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목포



목포 남향 친환경선박 연구인프라 조감도.

/목포시

남향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적화 단지를 구축 중에 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전기 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이며,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협업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기

추진 차도선'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운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목포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범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실증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 최초의 2,600톤급 '해상 테스트베드(K-GTB)'는 작년 9월 목포소재 기업에서 용골거치식을 갖고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으며, 향후 해상실증 기법과 절차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중소형 여객선(요트)도 개발되고 있다. 수소연료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에 해상의 풍력과 태양광을 접목해 친환경선박의 고질적 문제였던 연료소모량을 감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밖에도 세계 최대규모(30MW급)의 전기추진시스템 육상시험설비인 LBTS (Land Based Test Site) 또한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이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나 크루즈, 구축함급 함정까지 다양한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국산화와 세계시장 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 사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할 핵심시설이 5개동이 남향 교육연구지구에 들어설 예정인데, 2개동(충전시험동, 관제유지보수동)을 이미 준공하였고, 3개동(연구동, 전력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 또한 작년 말 착공되어 오는 2025년 본 모습을 갖추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면제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되어 산단 조성계획과 더불어 산단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산단 진입도로 4차선 개설 등 산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경북)=이상호 기자

### 대구시 신천 둔지 사계절 사색정원 조성

대구광역시시는 대봉교 200m 하류 신천 좌안 둔지에 사계절 사색(四色)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사색정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가지 색 노랑, 빨강, 보라 흰색으로 표현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목본류 71종 591본, 초본류 72종 15516본을 4가지 색깔별 정원에 다르게 심어 사계절 다양한 색으로 꽃이 피고 지는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또 정원 곳곳에 색감 있는 담장과 의자를 설치한 쉼터, 능소화가 심어진 트렐리스 등이 있어 신천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 진도군 우흥섭 부군수, 31년 공직 마무리

우흥섭 진도부군수가 명예퇴직하며 31년간의 공직생활을 지난달 30일 마무리했다.

우흥섭 부군수는 완도 출신으로 1994년 7급 공채로 완도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전남도 신안군 해양수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우흥섭 부군수는 퇴임 소감문을 통해 31년간 최선을 다해 일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하다면서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진도군 곁에서 함께하며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 확대 출범

'저출생과 전쟁'을 진행 중인 경북도가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조직개편으로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정식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한다.

저출생극복본부에는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돼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인구 및 저출생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모인다. 또한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계획 수립 ▲여성 친화 경북 등 저출생 극복 심화 전략 마련 ▲저출생 대응 관점,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부산시, 의료관광 유치 '본격화' 지난해 外人 환자 수 11.6% 늘어

부산경제진흥원과 설명회 가져  
의료관광 중점 협력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총 1만 29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주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입이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중심으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지난달 25일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 의료관광 유치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웰니스관광과 의료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교류할 기

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에게 ▲최신 정보 정보 습득 ▲상호네트워킹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 의료관광을 이끄는 기관을 선별해 전방위로 집중 홍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의료관광 중점 협력기관을 선정했다.

앞으로 중점 협력기관 분야별로 부산의료관광 공식 SNS 및 유관 기관 협력 채널에서 중점 기관 개별 소개 및 전방위로 홍보 할 계획이다. 또 진흥원은 몽골, 일본 등 타깃 국가 현지에서 의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영광군,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5만㎡ 간척지에 3MW 규모로 추진

전남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 쌀과 전기를 함께 수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후 2년에 걸쳐 도와 영광군, 마을주민이 합심한 결과 최근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월평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월평마을 앞 5만㎡ 면적의 간척지에 3MW 규모로 추진된다. 1단계로 올해까지 1MW 준공을 완료, 2026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월평 사례는 현재 평균 60kW 수준 소규모 실증단계인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 최초 상용화 모델로, 농지 잠식



영농형 태양광단지.

도 없고 주민 수용성이 높아 지속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발전 수익을 토지소유자, 경작자 뿐만 아니라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마을 주민까지 모두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농촌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영양군, 베트남서 농특산품 홍보 관촉행사

'한국인의 특별한 맛' 주제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한국인의 특별한 맛'이라는 주제로 영양군 농특산품 홍보 관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홍보를 시작한 '하노이 호안가임'은 베트남의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유동인구 주말 평균 5만여 명이 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영양군은 이번 행사에서 우수 농특산품들을 전시·홍보하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시연하여 베트남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



영양군, 베트남 농특산품 홍보관촉 행사 사진.

다. 특히, 대표품목인 영양 고춧가루, 고추장은 최근 K-푸드 인기로 김치, 떡볶이, 두루치기 등의 다양한 재료로 사용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최우수 선정

금오공과대, 기술핵심기관

구미시가 '2023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에서 전국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 중 최우수로 선정됐다.

구미강소특구는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R&D 특구로, 올해로 사업 4년차를 맞이했다. 금오공과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공공기술이전·사업화·재투자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과학기술 기반 제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226억3300만원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3년간 성과로는 기술이전·출자를 통해 유망 우수기술을 수요기업에 매칭하고,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과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적인 특허권을 보유한 첨단기술 기업 설립을 맞춤 지원했다. 그 결과, 23년까지 연구소기업 30개사, 첨단기술기업 2개사를 설립했으며, 매출액 141억8000만원, 신규 고용 53명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구미(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사조그룹, 3세 경영 본격화... 주지홍, M&A·사업다각화 주도

〈오너 3세〉

참치 위주 사업 벗어나 외형확장  
유통·급식 업체 ‘푸드스트’ 인수  
주 부회장 “올해 매출 6조 달성”



주지홍 사조그룹 부회장 /사조그룹

사조그룹이 변하고 있다. 기존 참치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 냉동김밥 해외 수출부터 급식 서비스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올해 목표 매출인 6조원을 향해 외형을 크게 바꾸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조그룹의 외형 확장을 오너 3세인 주지홍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최근 식자재 유통·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푸드스트를 인수했다. 푸드스트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지분 99.86%를 갖고 있었다. 사조그룹은 식품 계열사인 사조대림의 100% 자회사인 사조CPK를 통해 이번 M&A를 성사시켰다. 사조CPK가 지분 68.16%, 또 다른 계열사인 사조오양이 지분 31.7%를 인수했다.

푸드스트는 지난 1995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식자재유통 및 급식사업부로 출범했으며, 2020년 VIG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번 M&A로 VIG파트너스는 인수 4년 만에 15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푸드스트의 최근 3년 연결매출은 2021년 7894억원, 2022년 9134억원, 지난해 1조291억원 등 연평균 1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년 7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22년 42억원의 영업이익, 지난해 7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푸드스트는 식자재 유통사업이 전체 약 75%, 급식 사업이 약 25%를 차지한다. 또 푸드스트는 전국 6개 권역의 물류센터와 13개 도매 마트 ‘식자재왕마트’를 보유해 유통망도 갖췄다. 온라인 자사몰 ‘e왕마트’도 있다. 실제로 전국 일일배송이 가능하다.

사조그룹은 푸드스트 인수로 제조에서 유통에 이르는 식품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됐다. 사조CPK가 햄, 어묵, 식



사조냉동김밥

/사조대림

용유, 전분당에 걸친 식재료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푸드스트를 통해 이를 외부로 유통할 채널을 갖추게 된 셈이다.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조그룹 측은 이번 M&A로 “1차 산업을 통한 식자재 공급 안정과 구매 시너지, 나아가 그룹 전반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브랜드 전략도 다양하게 수립할 계획”이라며 “소스, 가공식품, 식품 소재 등 구간 다양하게 구축된 사조의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능력도 이번 푸드스트 합류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급식 서비스기업들은 사조그룹의 푸드스트 인수를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경쟁사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사조그룹이 이전부터 다품종 저가 전략을 펼쳤었기 때문에 이번 인수로 자사의 급식 수주에 타격이 입지 않

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식품사업에서도 사조그룹은 경쟁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냉동김밥 3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상반기 참치김밥, 유부우영김밥, 버섯잡채김밥을 선보이고 미국으로 수출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냉동김밥 수출을 시작했고 초도 1차, 초도 2차 물량과 추가발주 물량을 모두 합산해 총 36톤을 출고했다. 이는 김밥 약 15만5000줄 이상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후로도 매달 7만2000줄 가량을 수출할 예정이다.

사조그룹은 전 세계에서 냉동김밥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판매도 지속적인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농식품 누적수출액 중 가공식품 수출액

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는데, 그중 냉동김밥을 비롯한 쌀가공식품은 42.8%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그룹은 현재 입점한 미국 내 마트 ‘H마트’를 포함해 다양한 판매 채널을 개척하고, 글로벌 소비자와 점점을 넓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M&A와 냉동김밥 수출 등 사업 다각화 과정을 주도한 인물은 그룹 식품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사조그룹 오너 3세 주지홍 부회장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지홍 부회장은 연세대학교, 일리노이 대학원을 거쳐 컨설팅회사 베어링포인트에서 근무한 이후 미시간대 앤아버 MBA를 졸업한 뒤 사조그룹에 입사했다. 사조대표 기획실장, 경영지원 본부장을 맡으며 경영 보폭을 넓혔으며 2015년 식품총괄 본부장을 맡은 이후 2016년 국내 제분업계 3인 동아원(현 사조동아원)을 인수한 후 경영정상화와 체질개선을 이루어 냈다.

주지홍 부회장은 “푸드스트 인수를 통해 그룹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여 올해 매출 6조원 달성과 5년 내 10조원 외형을 갖출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농심,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라인업 강화

세 번째 제품 ‘라즈베리빵’ 출시  
풍부한 버터에 라즈베리 어우러져



빵부장 라즈베리빵

/농심

농심이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시리즈 신제품 ‘라즈베리빵’을 출시한다. 지난 10월 ‘빵부장 소금빵’, 올해 1월 ‘빵부장 초코빵’ 출시 이후 세 번째로 선보이는 제품이다.

신제품 ‘빵부장 라즈베리빵’은 풍부한 버터와 라즈베리가 어우러진 상큼달콤한 맛을 구현한 크루아상 모양의 스낵이다. ‘베이커리 스낵’이라는 빵부장의 콘셉트에 맞춰, 크루아상에 라즈베리 콩포트(잼)를 곁들인 유명 빵 메뉴를 스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개

발했다.

농심 관계자는 “라즈베리는 특유의 상큼한 맛으로 여름철 음료,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등에 많이 활용되는 과일”이라며 “빵부장 특유의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식감에 라즈베리의 상큼함을 더한 신제품 ‘라즈베리빵’을 여름 나들이와 함께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 빵부장 시리즈는 베이커리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급스러운 맛을 스낵으로 구현한 제품으로, 현재 ‘소금빵’과 ‘초코빵’ 2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유명 빵 메뉴를 스낵으로 간편하게 즐긴다는 ‘베이커리 스낵’ 콘셉트와 가상의 스낵 연구원 ‘빵부장’ 캐릭터 마케팅이 인기를 끌며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약 8개월 만에 누적 1500만 봉 판매를 돌파했다.

/신원선 기자

## 쿠팡, 21일까지 ‘메가뷰티쇼’ 개최

선크림 등 2000여개 제품 80% 할인

쿠팡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메가뷰티쇼’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메가뷰티쇼는 쿠팡이 연 3회 진행하는 대규모 뷰티 할인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크림, 젤, 마스크팩부터 티트, 하이라이터, 글리터까지 쿠팡이 엄선한 인기 제품 2000여개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판다 바오패밀리와 콜라보한 비치백이 포함된 라네즈 네오쿠션 세트를 비롯해 ▲피지오겔 레드수딩 AI 글로우업 선크림 ▲다터자르트 더마스크 바이탈 하이dra 솔루션 ▲AHC 슈프림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등이 있다.

쿠팡은 와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행사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 시 4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여름철 필수품인 보냉백을 선착순으로 한정수량 증정한다. 사은품은 ID당 최대 3개 받을 수 있으며, 내달 15일부터 순차 배송된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특별관을 운영한다. ‘1+1 득템찬스’ 코너에서는 닥터자르트 마스크팩, 쏘내추럴 메이크업 픽서, 라네즈 네오쿠션 리필 등 인기 제품을 구매하면 동일한 제품을 하나 더 증정한다. 브랜드별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매일 오전 7시에 오픈하는 ‘하루특가 골드박스’와 색조 제품을 모은 ‘메이크업 특별관’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쇼핑의 편의성을 높였다.

/최빛나 기자 vitna@

## NS홈쇼핑 “‘럭키세븐혜택’ 챙기세요”

NS홈쇼핑이 오는 25일까지 모바일 앱에서 ‘럭키세븐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럭키세븐혜택’에서는 이벤트 기간 동안 편성된 TV홈쇼핑 방송 상품 구매자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랜덤 적립금을 준다. NS홈쇼핑과 NS샵플러스 방송에서 이벤트 대상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당일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1회 응모 가능하다.

‘럭키세븐혜택’에서 지급되는 행운혜택은 적립금 1만원, 5000원, 1000원 외에도 7일 이내 사용가능한 ‘방송상품 7%할인쿠폰’도 있다. 랜덤 적립금은 응모 시 즉시 적립되고, 응모 당일만 사용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 오비맥주 카스, ‘제로제로 카페 트럭’ 이벤트

파리올림픽 오피셜 파트너 기념

오비맥주 카스는 무더운 날씨에 지친 소비자들의 일상에 응원을 전해줄 ‘제로제로 카페 트럭’으로 서울 시내 곳곳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로제로 카페 트럭’은 오비맥주 카스가 ‘2024 파리올림픽’ 오피셜 파트너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카스는 국내 주류업계 최초의 올림픽 파트너로,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다채로운 올림픽 캠페인을 전개하며 응원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카스는 이번 카페 트럭 이벤트를 통해 바쁜 일상과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색다르고 유쾌한 방식으로

전할 계획이다.

카페 트럭은 평일 중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장소 및 주말 중 소비 밀집 지역을 게릴라성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제로제로 카페 트럭’을 방문한 소비자는 성인 인증을 통해 받은 시음권으로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신선한 맛의 성인용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과 ‘카스 레몬 스쿼시 0.0’를 맛볼 수 있다. 또한, 개인 SNS에 트럭과 시음권 인증 사진을 함께 올린 소비자에게는 카스 0.0 한 캔을 제공한다.

해당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오비맥주 카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신원선 기자

## 이마트 “한달간 와규·삼계탕 등 파격 할인”

여름물가 안정 테마 ‘가격파격’ 선언

이마트는 한달간 ‘여름 물가 안정’을 테마로 더 강력해진 라인업의 ‘7월 가격파격 선언’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가격파격 선언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필수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가격 투자형 프로젝트다.

핵심상품으로 달링다운 ▲와규 ▲삼계탕 ▲버섯 ▲두부를 선정했다.

대표 여름절기인 초복(15일)과 중복(25일)을 맞아 한 달간 ‘호주산 냉장 달링다운 와규 뒷등심살(100g)’을 정상가

대비 41% 할인한 3980원에 판매한다.

‘올반 양양 삼계탕(900g)’과 새송이버섯을 정상가 대비 50% 할인해 각각 5980원, 1980원에 판매한다.

필수 요리 재료인 두부도 할인해 ‘자연존맛있는 두부(840g)’를 38% 할인한 1480원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필수 요리재료 및 조미료, 간식류, 필수생활용품 등 총 40여개의 가격파격 상품을 선보인다.

한편 이마트는 반년 간 가격파격 선언을 선보이며 고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상품을 초저가로 판매해 왔다.

/최빛나 기자

# 게임룸·영화감상까지... 삶 즐기는 1인가구 위한 '거주 공간'

## 코리빙 하우스 '셀립'

내부 인테리어로 안락한 환경 조성  
은평점 옥상 루프탑 북한산 전경 뷰  
헬스장·시네마룸 등 시간제 운영  
시설동선·공간구성 넓혀 독립화

"집이라는 공간을 가격적인 자산이나 투자의 의미에서 효율성만 중시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깨고 삶을 즐기는 거주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코리빙 하우스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셀립' 은평점에서 만난 명성준 셀립 리드 매니저는 집이라는 공간을 자산이나 투자의 의미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잠만 자는 공간에서 벗어나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집의 모습. 바로 1인 가구 중심의 코리빙 하우스다.

셀립은 공유주거 전문 기업 우주프로퍼티테크놀로지(우주프로퍼티)의 코리빙 하우스 브랜드로, 서울에서만 4곳(셀립 은평, 셀립 가디, 셀립 여의, 셀립 순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코리빙 하우스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장점을 살린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개념이다.

셀립의 사업 배경은 1인 가구의 지속



북한산이 멀리 보이는 셀립 은평 내부 객실.



영화감상실.

/안재선 수습기자

적인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 명성준 셀립 리드 매니저는 "대한민국의 인구수 50.5%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1인 가구 주거 공간이 굉장히 좁고 또 부족하다"고 전했다.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새로운 주거 공간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년 31.7%에서 22년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접 셀립 은평점에 방문해 보니 단 순 세대 공간 확보 차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다같이 사는 공용 주거 형태였지만, 혼자 있는 듯한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셀립 관계자는 "셀립의 주거 공간은 방해받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방해받지 않는 편안함.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첫 번째 요소는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였다. 명도는 높이고 채도는 낮춘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 책상과 의자, 가구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째고 툭툭 튀는 색이 아닌, 차분하고 깔끔한 단색의 조명과 가구들이 한 데 어우러져 1인 가구만을 위한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셀립 은평에서 바라보는 자연 경관 또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크게 뚫린 창문 너머 북한산의 전경이 한 눈에 담겼다. 객실 내부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 루프탑에서도 북한산의 전경이 한 눈에 크게 들어왔다. 셀립 은평의 시설 관계자는 "창을 좀 크게 크게 냈고 자연광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1인 주거인들을 위한 느슨한 연결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셀립 은평에는

응접실을 비롯해 영화감상실, 게임룸, 공유주방, 식당 등이 갖춰져 있었으며 헬스장과 그룹운동활동(GX)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이 공간들은 모두 공용 공간이지만 시간제 운영을 통해 개인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시설 내부 동선과 공간 구성을 넓게 확보해 입주민들과 같은 공간을 써도 혼자 있는 듯한 느슨한 느낌을 자아냈다.

거주 비용은 원룸형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70만원, 관리비 12만~15만원, 공동시설 사용비 5만원까지 합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약 80만~90만원 정도다. 최소 3개월부터 한 달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 4인용 셰어하우스인 맨션형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이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롯데리조트속초 '카니발 삼바 페스티벌'

롯데리조트속초가 어린이 고객을 위한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리조트속초는 7월 6일과 7일, 이틀간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함께 '카니발 삼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메인 삼바 퍼레이드 쇼와 함께 어린이 고객을 위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리조트속초에 따르면 삼바 퍼레이드 쇼에서 브라질 현지 삼바 무용수들이 화려한 의상과 함께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롯데리조트속초 앞 야외 공간에서 이틀간 저녁 8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다.

호텔 숙박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객실 패키지 상품도 준비됐다. 숙박권 함께 아이들이 공주와 왕자로 변신해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린세스오브 퍼레이드'와 객실 1박, 롯데월드 라이트 야광봉, 로티로리 인형으로 구성된 '삼바 투게더'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패키지 구매 고객 외 행진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 투숙객은 내달 6일에 진행되는 행사에 한해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안재선 수습기자



'카니발 삼바 페스티벌' 홍보 안내 사진. /롯데리조트속초

## 애경, '스포트라이트' 론칭

중서 프리미엄 제품군 경쟁력 강화  
틱톡 더우인 등서 신제품 판매 시작

애경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 28일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랑주 문화예술센터에서 '한여름밤 빛의 향연' 행사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는 프리미엄 제품군 '스포트라이트'를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

'스포트라이트' 제품군은 에이지투웨니스 대표 제품인 '에센스 팩트'를 비롯해 '메이크업 베이스', '프레스드 파우더'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에이지투웨니스 프리미엄 제품군 '스포트라이트' /애경산업

특히 에센스 팩트는 광채 나는 피부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으로, 피부의 결광, 수분광, 속광, 생기광 등을 완성해 준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 김민영·정재훈 사장 맞교환

지주사-사업회사 간 사장 트레이드

동아쏘시오그룹이 각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책임자를 배치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나선다.

30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동아쏘시오그룹은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을 맞교환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으로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김민영 사장은 경영 전문가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쏘시오홀딩스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동아에스티 대표를 맡아 뉴로보, 앵티스 인수를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동아에스티

통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회사 성장에 앞장서 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 사장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해야 하는 계열사 경영효율성 관리, 사업 포트폴리오 및 투자 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M&A 등 지주사 본연의 역할 수행을 이끌어 가게 됐다.

/이청하 기자

## 메디톡스 '톡신·필러', 중동 진출 박차

UAE 테콤그룹과 생산공장 설립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제약 기업 메디톡스가 중동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기업 테콤그룹과 보톨리눔 톡신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계약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앞서 지난 2023년 1월 메디톡스가 테콤그룹과 체결한 톡신 완제품 공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윤석열 대통령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모범적 협력 사례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았다.

/이청하 기자

## 대상웰라이프, 맞춤형 메디푸드 상용화

전북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 체결

대상웰라이프가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와 '맞춤형 기능성식품 및 메디푸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28일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이진혁 대상웰라이프 FM MI실장과 채수완 전북대병

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분야에서 국내 식품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인체적용시험 및 임상연구 ▲식품·임상DB활용 마이크로바이옴 발굴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CJ올리브영 헤어·바디 상품 확대

CJ올리브영이 스킨케어 부문을 기초 화장품에서 헤어와 바디 관련 제품군으로 본격 확장한다.

CJ올리브영은 '올스킨 올케어' 캠페인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올리브영은 오는 7월 7일까지 인기 헤어&바디케어 상품군을 최대 43% 할인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5일간 각종 기능성 헤어&바디케어 상품을 대거 선별해 '클린 업! 특가'와 '레벨업! 특가'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잠실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올영장' 팝업 매장이 운영된다. '올영장'은 두피와 몸 피부가 주인공이 되는 올리브영의 특별한 목욕탕을 주제로 한 체험 공간이다.

올리브영은 두피와 전신 피부는 전체 피부의 약 98%를 차지하는 만큼 얼굴 피부처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 실거주 의사의 요건



## 코스콤, 발달장애 청소년 휴게공간 조성지원

코스콤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 지원에 나섰다. 코스콤은 서울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휴게 공간' 개소식에 참석해 기부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코스콤



## 이랜드건설, '제2회 준법안전경영 선포식' 열어

이랜드건설이 지난 28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제2회 준법안전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산업 재해 감축 및 준법안전문화 혁신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경영방침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랜드건설



## CJ CGV-온기, 명동서 '오픈 파트너스 데이'

CJ CGV는 사단법인 온기와 함께 지난 28일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오픈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오픈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는 양사가 지난 3년간 협력해온 사례를 통해 기업과 비영리조직이 함께 만든 '컬렉티브 임팩트'와 화제가 되었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CJ CGV



## 대우건설-동아오츠카, 폭염 안전 공동 캠페인

대우건설은 동아오츠카와 함께 지난 26일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앗 현장에서 폭염 안전 공동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들어서 시행된 첫 번째 공동 캠페인으로 대우건설은 올해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기간 근로자 경각심 강화, 근로자 건강 보호 및 현장 안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우건설



## 건국대 동물병원, 'KU 동물즐기세포 치료센터' 개원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현영 교수)이 28일 첨단 재생의료 연구를 통한 난치성 환자치료를 위해 'KU 동물즐기세포 치료센터'를 개원했다. 30일 건국대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최선의 치료'를 목표로 이번 즐기세포 치료 센터를 개설했다. /건국대



김지혜 변호사의  
순에 잡히는 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됐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 다음 9가지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약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1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2호)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3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4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이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5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6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이거나 건물 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7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9호)이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 거절사유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특히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는데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생각이 바뀌어 결국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요건 및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의

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단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법무법인 바른

## 파츠파츠, '애플·태평양 스티비상' 수상

### 제조산업 혁신우수상 '금상'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파츠파츠'가 패션산업의 순환 경제에 앞장서고 있다. 30일 '파츠파츠'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필리핀에서 진행된 '2024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2024 Asia-Pacific Stevie Awards)' 시상식에서 제조산업 혁신우수상 카테고리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파츠파츠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옷을 부품처럼 조립하고 완벽한 제조 기술과 단일 품목 재료를 사용해 의류를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을 줄여 순환 경제에 기여하며 제조업을 변화시

키고 있다.

또한 회사는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에서 혁신의 등대 역할을 하며 운영 성과와 폐기물 제로 이니셔티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아울러 제로웨이스트 워크샵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영향력과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파츠파츠가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및 솔루션 제공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고객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와 솔루션을 구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고객 중심적이고 고객을 도울 준비가 된 좋은 조직이라고 심사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글로벌 옥외광고

### 美, 英, 中 등 랜드마크서 진행

삼성전자가 오는 7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4 (Galaxy Unpacked 2024: Galaxy AI is Here)'를 앞두고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새로운 갤럭시 알리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중국 청두 타이쿠리 등에서 '갤럭시 언팩 2024' 디지털 옥외광고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영상에는 갤럭시 언팩과 폴더블을 연상시키는 도형이 나타나고, 이후 도형이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그림자가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과 '갤럭시 AI'를 상징하는 별모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갤럭시 언팩 2024' 디지털 옥외광고. /삼성전

양 등으로 순차 변환된다.

프랑스 파리 언팩에서 소개될 새로운 갤럭시에 대한 예고를 하는 해당 영상은 '갤럭시 AI'와 신규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구남영 기자



황선우(수영), 박해정(역도), 강경민(핸드볼), 윤지수(펜싱), 송세라(펜싱), 구본길(펜싱), 오상욱(펜싱, 왼쪽부터) 등 팀 SK 선수들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열린 '팀 SK 출정식'에서 단체 인터뷰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 SKT, 파리올림픽 출전선수 후원

을지로서 '팀 SK 출정식' 행사 펜싱, 핸드볼, 역도, 수영 선수 참가 SK텔레콤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역량을 겨루는 올림픽 무대를 맞이해 '팀(Team) SK 출정식' 행사를 29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 T-타워 수퍼스홀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SKT는 2022년 아마추어 국가대표 및 스포츠 꿈나무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스포츠 균형발전과 스포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오상욱, 구본길, 송세라, 윤지수(이상 펜싱), 강경민(핸드볼), 박해정(역도), 황선우(수영) 등 총 7명의 선수들이 참석했다.

펜싱의 구본길, 오상욱 선수는 "누어펜저스는 이전 어펜저스에 대한 관심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과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또 패기도 더해졌으니 많은 기대를 해주신다면 이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인터뷰 종료 후에는 팬들의 응원 열기와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디지털 성화를 채화하는 'T-성화 채화 포토콜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이어서 파리에서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SKT의 자체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A.X Diffusion)이 일부 접목된 팀 코리아(Team Korea) 응원 영상을 상영하며 출정식 행사가 마무리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인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장 이종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국정과정지원과장 이훈범
- ◆소방청 ○소방총감 △소방청장 허석곤

### 부음

- ▲홍복록씨 별세, 김정권(회사원)·김남

- 권(연합뉴스 국제뉴스2부장)·김명준(M BN 앵커)·김하나(강사)씨 모친상, 이지연(주부)·김소영(주부)씨 시모상, 김의권(회사원)씨 장모상 = 29일 오후 9시 2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7월 2일 오전 6시, 장지 분당 메모리얼파크 02-3010-2000
- ▲유승규씨 별세, 김대경(MBC 디지털뉴스편집팀 부장)씨 방부상 = 29일 오후 6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7월 2일 오전 9시 20분, 02-2227-7547



색다른 감각의 이머시브 뮤지컬  
세계 최초 그랜드 오픈

뮤지컬 바다

100

총 짜리 짝

©Toshio IWAI/ KAISEI-SHA

24.07.06(토) ~ 08.15(목)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Original Toshio Iwai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케팅 에이전시 컴퍼니 예매 인터파크 티켓 문의 02-766-9001

#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단상



김승호의  
시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결국 지났다. 매년 반복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행태다. 위원회는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 위원회 소속 사용자위원(경영계)과 근로자위원(노동계)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이 뻔하다. 그러다 공익위원들의 '공익' (?)적인 중재로 내년 최저임금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늘 그런 식이다. '공익'이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중립'과 '중재'가 내포돼 있는 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위원회만 놓고 보면 매년 드는 생각이다. 각설하고, 올해 결정해야 하는 내년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차등(구분)적용'과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다.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음식점업, 택시 운

송업, 편의점업 등에 대해 차등해서 좀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강조한다. 경영계에 속하는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주인)은 72만원 벌다"면서 일부 업종에서 사장들의 지불능력이 낮고,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p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불능력 취약업종에 대해선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차등'을 '차별'이라고 보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호주,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적지 않은 나라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하향식'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과학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의도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는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기준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낮게 차등을 두자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가 더 낮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빈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만원' 돌파 여부를 놓고도 끝까지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수준에서 140원(1.4%)을 올리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88년부터 적용한 최저임금은 2021년 인상률이 1.5%(130원)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임금생활자들도 고공리, 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져 허덕이긴 마찬가지다. 고심끝에 그 적정선을 찾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 재난·재해와 보험



김주형의  
수첩

사용하던 폴더블 폰의 한쪽 화면이 고장났다. 몇달을 불편에 적응하다 날 잡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신나게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설명했다. 수리기사 몇 분 후 예상 수리견적서로 답했다. 60만원의 비용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보험 가입하셨죠?" 기사는 보험 가입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불행히도 구매 당시 폰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망가진 휴대폰은 아직도 현역이다. 소를 잃을 것만 같았던 아니라 외양간을 고칠 비용은 생각조차 안했다. 보험은 잃어버린 소를 되찾아주진 못하지만 외양간을 고쳐줄 순 있다. 다만 저조

한 보험가입률을 억지로 끌어 올린 순 없다. 주요 보험인 암·심혈관 등 건강보험은 가입에 익숙하지만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기준 화재보험 계약 1457만건 중 지진특약 건수 48만건으로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에 그쳤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해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화재 공제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공제보험 가입률은 지난 5월 기준 31.8%에 그친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을 마련했다. 연간 보험료는 20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점포별 30~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해 보험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 제고에 나서고 있으나 수요가 적고 손해율이 큰 보험은 언제나 후순위로 고려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치지 못한 것은 작은 휴대전화였지만 국가적인 재난·재해로 잃어버린 재산은 작지 않다. 재난·재해에 취약한 외양간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소비자도, 보험사도 제쳐두고 있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역할이 한번쯤은 단독 무대에서 주목받아야 한다. /gh471@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5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48년생 믿고 의지하던 친구와 의견대립이 생긴다. 60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72년생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면 보답이. 84년생 좋은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한심.
- 소** 3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도 한 방법이다. 49년생 절이 싫으면 불평 말고 종이 떠 나면 그만이다. 61년생 외출할 때 이문자를 조심. 73년생 언쟁에 휘말리게 되니 본전 찾기 힘들다. 85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단조로운 하루이다.
- 호랑이** 38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50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62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74년생 목표를 향해 전진하도록. 8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 토끼** 39년생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는다. 51년생 생각을 바꾸면 외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63년생 우물에서 송송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75년생 견문을 넓히도록 책을 열심히 보라. 87년생 망각의 강을 건너듯 기억력이 떨어진다.
- 염** 40년생 좋은 일이라도 금방 달려들지 마라. 52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신중하게. 64년생 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76년생 언제나 준비해야 내일이 희망이다. 88년생 복잡한 흥량은 잠시 두면 맑아진다.
- 뱀** 41년생 미인은 명이 짧거나 운명이 불행하다. 53년생 사람이 꼭 명명한 것만은 아니다. 65년생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해 보는 것도. 77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신용으로. 89년생 형식적의 의미를 찾아보라.
- 말** 42년생 좋은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본다. 54년생 계산보다는 올바른 자신이 구실수를 예방한다. 66년생 하나를 뿌려서 세 개를 수확하는 날. 78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설렁처럼 좋은 것은 당분간 보류. 90년생 재주는 다 쓸모가 있기 마련.
- 양** 43년생 자식이 예뻐도 무질서는 고쳐야 하는데. 55년생 어려서도 본받았던 사람 같아도 그렇지 않다. 67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79년생 알 수 없는 투자는 낭패를 불러온다. 91년생 허물을 고치는 것으로도 운명은 개선된다.
- 원숭이** 44년생 불리하면 도망치려 했으니 삼심육계 아니겠는가. 56년생 자식이 양상군자이다. 68년생 길 떠나려는데 산발 끈이 풀리니 잠시 쉬었다 가자. 80년생 조금만 더 하면 목표에 도달. 92년생 제2의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 닭** 45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보라. 57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69년생 내가 놓은 뒷에 스스로 걸린다. 81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3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많으니 가쪽 자랑은 금물인데.
- 개** 46년생 해주고도 욕먹는다는 말이 실감 난다. 58년생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활기차게 감사하다. 70년생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간다 했으니 도전하라. 82년생 반포지효는 하늘도 공감하여 돕는다. 94년생 문 앞이 장터를 이룬 듯 복적이게 된다.
- 돼지** 47년생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59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71년생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지가 궁궁. 83년생 오십보백보를 따져본들. 95년생 월하노인 즉 남녘을 이어주는 운명의 붉은 실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 김상회의 四季

시대를 읽는 눈

2024년도 음력으로 5월이요, 양력으로도 곧 일년의 반이 지나간다. 세월의 빠름은 이미 강조하기도 지칠 판이다. 갑진년은 혼란스럽고 내홍이 적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체질과 탄력성이 단단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내홍이 적지 않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말이다. 요즘은 송하비결을 회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것으로 보여져 한때 많은 이들이 송하비결의 여러 대목을 화제로 삼곤 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전래의 비결서에 한결같이 보이는 대목들은 극도의 혼란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성인이 나타나 대한민국이 군자의 나라로서 동방인목의 기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암시하는 대목들이 자주 보인다. 송하비결이나 정감록이 그 대표적 예이다. 탄허스님 예언이 인상에 남는데 아마도 스님은 필자가 뜻밖의 어린 시절에 그분의 저서를 직접 읽어보고 감명한 탓도 있을 것이다. 비결서와 관련한 예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요점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세계의 주류에 편입되고 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K-POP과 음식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70년대 초기에 탄허스님이 예견한 그대로이다.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겪어내는 탓이다. 결국은 헤쳐나갈 것이다. 역학을 아는 이들은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기호를 읽어낸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준비할 수 있다.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가 몹시 어렵다고 하는데 당분간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혼란한 사회를 이겨나가 분명 우리나라는 후천갑자의 동방인목의 기치로 도약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10시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스토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3	9					
2		6	8					7
							3	
			8	4				3
	2				4			
3			2	9				
	9							
4				1	5			8
		7	4		3			2

1		8				6	3	
9					1		7	5
	4		7					
	3		8					
			6	3				
				1			3	
				5		6		
7	8		3					4
6	2			8				1

2	6	8	7	4	9	9	1	
8	4	9	1	9	6	8	2	7
7	9	1	8	2	9	4	6	8
9	9	8	4	6	2	1	7	8
6	1	7	9	9	8	2	8	4
8	2	4	7	8	1	6	9	9
9	8	9	2	1	7	8	1	6
4	7	6	9	1	8	9	8	2
1	8	2	6	8	9	7	4	9

1	6	8	8	7	4	9	2	9
7	2	9	6	9	8	1	8	4
4	8	9	2	9	1	8	6	7
2	8	6	4	1	9	9	7	8
8	7	4	8	2	9	6	1	9
9	9	1	7	8	6	4	8	2
6	1	8	9	4	2	7	9	8
9	4	2	1	8	7	8	9	6
8	9	7	9	6	8	2	4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화물용 전기자전거, 저공비행 관광 교통으로 혁신정책 펼치는 세계도시

뉴욕시, 물류에 전기자전거 도입 무공해 자전거로 탄소배출량 줄여

충칭시, 프로펠러 항공기 관광상품 항공기 생산, 파일럿 양성 박사



상업용 저공비행 관광에 사용된 프로펠러 항공기. /광장신구관리위원회·서울연구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저공비행 관광 상품 출시’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혁신적인 교통 정책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물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했다. 대형 배송용 트럭이 야기하는 교통 혼잡 및 대기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뉴욕시에서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쇼핑이 활발해지면서 배송 물량이 늘었고 도로에 대형 배송용 트럭이 증가해 보행자 안전 위협, 환경 오염, 이종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19년 상업용·화물용 전기자전거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22년 뉴욕시에서는 저공해·무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13만건 이상 운행돼 500만개가 넘는 소포를 배송했다”면서 “이를 통해 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만t 이상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강을 물류 배송에 활용하는 ‘블루 하이웨이 이니셔티브’ ▲중간 배송 공급센터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 친환경적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마이크로 허브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물류 배송을 지원할 새로운 배달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화물용 전기자전거라는 신 교통수단 도입은 지속 가능한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충칭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상업용 저공비행 관광상품을 운영해 항공기 생산 활성화와 파일럿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펠러 항공기는 운행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통수단이다. 관광에 사용된 항공기는 시속이 200~300km로, 중국의 고속철도 평균 시속 350km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충칭시 등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에서 프로펠러 항공기를 활용한 저공비행 관광 개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해당 관광 상품이 항공 산업 발전에 도움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연구원은 “충칭시는 군 당국과 협력해 다양한 항로를 개발, 저공비행 관광 상품을 정착시키고, 프로펠러 항공기를 이용한 물류·의료 위생·방재 구호·과학 실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하반기도 ‘동행 서울’… 혜택·지원 늘린다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공개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혜택 늘어 임산부 지원, 키즈카페 확대 운영 등

서울시가 오늘부터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을 시작한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을 추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7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상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여는 한강 리버버스(가칭)는 10월에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기존 2개 권종에 ▲1일권(5000원) ▲2일권(8000원) ▲3일권(1만원권) ▲5일권(1만5000원) ▲7일권(2만원) 단기권 5종이 추가된다. 할인 혜택도 강화한다. 만 19~39세 청년은 5만5000~5만8000원으로 한 달간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시는 마곡~잠실 사이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운항하는 한강 리버버스를 선보인다. 편도 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6만8000원)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또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만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신청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포맽정보민생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실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종전 74곳에서 130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서남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정 기자

## 고양시, ‘자족도시’ 위한 투자유치 총력

바이오 첨단산업 유치 실패에도 오가노이드 분야 추가공모 대응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기간 야심차게 추진해 온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안타까운 고배를 마셨다.

시는 올해 말 토지공급이 예정된 일산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 다양성 확보와 용지 분양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총 5348억 원에 달하는 43개 기업의 투자의향을 확보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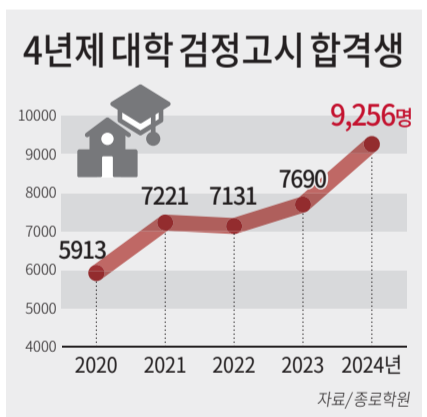
다만,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로 선정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가 R&D에 치중해 있고, 국내 생산기반과 산업생태계가 약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오가노이드 분야 추가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준비하고 암·오가노이드 기술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립암센터 등 관내 6개 대형병원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검토하고 있는 미래차·로봇·방산 등의 분야에도 시의 지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검정고시로 4년제 대학 입학 12년새 최다

합격생 9256명… 전년대비 20% 증가 SKY 합격생도 189명 ‘역대 최대치’



올해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며 공식 이래 최다치를 경신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비중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만족스럽지 못한 내신 점수를 검정고시를 통해 만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22개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수’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은 9256명으로 집

계됐다. 이는 대학알리미에서 2013년 검정고시 합격생을 공시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23학년도(7690명)과 견줘도 1년 새 20.4%인 1566명이 증가했다.

5년 전인 2019학년도 4521명이던 검정고시 합격생 수보다 2.1배가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2020년 5913명 ▲2021년 7221명 ▲2022년 7131명 ▲2023년 7690명 ▲2024년 9256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검정고시 합격생도 18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역시 82명이던 5년 전(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검정고시 합격생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주로 정시모집과, 수시 논술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지방권 대학에서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 집중된 것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

## 교육사다리 ‘서울런’ 소득기준 60%로 완화

수강가능 대상자 약 2만명 확대

이번달부터 약 2만명의 서울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강의를 추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런은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44만원 이하하면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일 (월) 음력: 5월 26일

수도권 날씨 22~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0/31, 동두천 20/30, 가평 19/32, 양평 21/30, 용인 22/30, 평택 21/31, 파주 20/30, 인천 22/27, 수원 22/30, 서울 22/30, 백령도 19/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1위 ‘이번’… 다음달 5일 결선투표  
▲“韓, 사도광산 조선인 위령시설 등 요구…일본, 보수파 탓에 고심” /사진 뉴시스

▲하마스 “휴전 협상 진전 없어”…美 제시한 수정안 사실상 거부  
▲中 관광객 ‘홍콩·마카오’ 면세한도 최대 3배로



▲미 대선 첫 TV 토론…바이든 ‘폭망’에 후보 교체론 급부상  
▲프랑스 총선 시작…극우, 역사상 첫 승리 예상 /사진 뉴시스



사조그룹  
3세경영 본격화  
사업다각화 주도  
L1



Life

코리빙 하우스 '셀립'  
1인가구 위한  
거주공간 조성  
L2



# 정치인에서 사업가로... “사람 끌어당기는 상권 만들고파”

## 새벽을 여는 사람들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사빈 책방지기

‘하로동선(夏爐冬扇)’, 혹은 ‘How’s(하우즈)’라는 상호를 들어보았는가. 하로동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97년 몇몇 정치인들과 함께 서울 강남지역에 열었던 고깃집이다. 국회 근처 How’s는 2020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보수진영 정치인들이 조합원이 돼 만든 정치·문화카페다.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2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하기 위해 활동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곧바로 창업을 준비했다. 2001년생의 정치인이 창업가로 변신한 것이다. 그렇게 ‘북카페 반월’은 문을 연 지 한달 남짓 지났다.

얼핏 보면 북카페 반월은 하로동선이나 How’s를 연상할 수 있지만, 이전 사례들과는 다른 것 같다. 북카페 반월을 방문한 이들은 강 전 부대변인이 ‘작정하고’ 창업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는 이에 대해 “정치를 위한 사업은 항상 실패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이 완벽하게 ‘책방지기’로 변신한 강 전 부대변인을 지난 25일 (메트로경제신문)이 만나봤다. 대구 동성로 통신골목에 위치한 북카페 반월은 2층은 책과 커피가 함께하는 공간, 3층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디톡스’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 ◆ ‘평산책방’을 오마주한 ‘북카페 반월’

강사빈 전 부대변인은 “이 지역구(대구 중·남구)에서 정치 활동을 한 것이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사이 선거를 두 번 도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했다. 그 가운데 나온 것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라는 키워드였다”며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계속 말해 왔었는데, ‘입으로만’ 상권 활성화를 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뛰어다니는 생각이 있었다”고 창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북카페’라는 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 전 부대변인은 ‘책방지기’라고 스스로를 설명했다. ‘평산책방’의 책방지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강 전 부대변인은 “평산책방을 약간 오마주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책방, 카페 등 예쁘고 세련된 것들, 혹은 정치인이 했을 때 의외거나 신선한 아이템들은 왜 항상 좌파 진영의 전유물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농사)이나 평산책방 모두 전직 대통령이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이 대중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세련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북카페 반월은 정치서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색도 찾기 힘들다. 대중의 기호에 맞춰 책을 골랐고, 공간을 꾸려서다. 강 전 부대변인은 “정말 사람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언젠가 한번쯤 ‘여기 주인장이 원래 이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이래’ 하는 정도만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일 뿐”이라며 웃었다.

자신만의 공간을 꾸리는 것은 힘들다. 그렇기에 창업은 힘들다. 심지어 강 전 부대변인은 전기 배선 등을 빼놓고 전 공사를 ‘셀프’로 했다. 직접 시멘트를 몇십자 루씩 나르고,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가구도 칠성시장에 가서 직접 골랐다. 대출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 과정이 행복했다고 한다. 그 공간은 오롯이 강 전 부대변인 스스로 꾸린 자신의 공간이라서다. 강 전 부대변인은



강사빈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25일 ‘북카페 반월’에서 책을 보는 모습. 북카페 반월은 강 전 부대변인이 최근 문을 연 곳이다. /서예진 기자

“총선 낙천 후 ‘북카페 반월’ 문을 열어 동성로 상권 활성화 위해 창업 결심 스스로 꾸린 공간... 힘들지만 행복해

책 파는 카페 넘어 복합 문화공간 꿈꿔 휴무일엔 ‘반월야학’ 강연 프로그램도 지역 청년 모이는 공간으로 키우고파

“리뷰 반응이 좋고, 문을 연 지 한달 만에 네다섯번 방문하는 단골도 생겼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힘든 일은 따로 있었다. 창업과 정보보다 정치 생활 정리가 더 어려웠다고 한다. 강 전 부대변인은 낙천 후 지역사무실에서 짐을 빼고 나왔는데, 보증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저 같은 청년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이 큰 돈 아니냐. 그런데 건물주가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은 것까지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에 얼굴이 알려진 청년 정치인이고, 강하게 따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 ‘반월야학’ 등 복합문화공간 꿈꿔

강사빈 전 부대변인이 생각하는 ‘상권 활성화’의 요소는 무엇일까. 그는 일단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디지털 디톡스’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동성로는 중심가였지만, 잠깐 머무르고 갈 뿐이지 체류 시간이 긴 장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해 낸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점심을 먹고 우리 카페를 와서 (‘디지털 디톡스’ 공간인 3층에서) 휴대폰 없이 독서를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저녁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손님들이) 이 주변에서 저녁을 드시

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체류 시간을 늘리는) 요인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북카페 반월은 독립출판 서적도 판매한다. 이곳에서는 일반 서적은 1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독립출판 서적은 정가에 판매하기로 했다.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고심하는 다른 독립서점들과 가격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그리고 이런 곳을 단순히 책을 읽는, 혹은 책을 파는 카페가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강 전 부대변인의 포부다. 카페 휴무일에는 ‘반월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연을 열었다. 다양한 분야의 연사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다. 최근 강연 주제는 챗GPT였다고 한다.

또 지역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키우고 싶다고 한다. 실제로 청년 세대가 오프라인 상에서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 그의 구상이 반갑기도 하다.

강 전 부대변인은 “‘반월구락부(가칭)’라는 지역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청년끼리 친해질 수 있는 모임도 만들고 싶다”며 “단순 북카페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모이는 살롱같은 느낌이 되도록 꾸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빈 전 부대변인은 동성로에 북카페 반월뿐 아니라 갤러리 사업도 구상 중이다. 그는 유명 프랜차이즈도 철수한 지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야 그 상권을 살렸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곳곳에 자신의 사업장을 열어, 지나가던 이들이 발길을 멈추고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는 그의 열정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갑작스러운 정해성 위원장 사퇴에도...KFA “열흘 내 새 감독 뽑는다”  
▲‘인사이드 아웃2’ 500만 돌파...전 세계 흥행수입 1조원

사진 뉴스스

▲한국, U-18 여자 아시아컵 결승 진출 실패...중국에 패배  
▲‘8경기 연속 안타’ 김하성, 시즌 12번째 멀티 히트



▲두산, 키움 출신 요키시 입단 테스트  
▲LCK 최초 홈경기 ‘T1 홈그라운드’ 성황리 종료

사진 뉴스스